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 株式會社朝鮮日報社

社說

佛人民戰線內閣成立

擬進되는漸進改革主義

一

去四月末의 總選擧로 與黨系가 慘敗하고 社會黨을 中心으로한 左派系卽 人民戰線이 大勝을 博하게된結果 사로內閣은 總辭職을 決意하고 그間 殘務處理에 奔忙하던바 四日에 이르러 드디어 總辭職을 斷行하엿스므로 이番選擧에 第一黨이된 社會黨의黨首 레옹·블룸氏를 首班으로한 人民戰線內閣이 卽日로 成立을 보게되엿다。

팟쇼的政治潮流가 世界를 風靡하는이때에 佛蘭西 今番總選擧에잇서서 人民戰線이 大勝을 博하엿다는것은 近代自由主義의 發祥地이니만치 佛國國民의 腦裡에 民主主義的思想이 뿌리깁피 박혀잇다는 그것도 한理由가되겟지마는 國際政局에 팟쇼政治가 擡頭한지도 이미 오랫고 따라서 그로因한 不美한結果도 넘어만히 目擊하엿슴으로 反팟쇼的傾向이 國民에게 널리 浸潤되엿다는 事實과 또 今番選擧에잇서서 左派聯合의 人民戰線이 相互間의 小異를버리고 右派聯合의 國民戰線에對하야 共同戰線을펴고 協力對抗한것이 今回勝利의 主要理由라할것이다。

二

佛國에잇서서 人民戰線內閣成立은 이番이 처음이라한다。이처음으로出現된 左翼內閣이니만치 從來의 右派聯合의 國民側內閣 또는 中央派中心의 聯立內閣과는 對外對內政策에잇서서 異彩가 나타나리라는것은 當然한 觀測이며 더욱히 블룸內閣成立에際하야 이番選擧에 大大的 進出을보게된 共產黨에서 「萬腔의 誠意로써 新內閣을 援助할것을 公約한다」고宣言을 發한 事實에비추어 그信念을 一層더 굿게하는듯하다。그러나 佛國은 從來부터 日英米等諸國과는 달리서 二十餘個의 多數政黨이 分立하야 그어느一黨이 過半數를 制할만한 多數議員을 갓지못함으로 恒常 聯立內閣이 出現하게되는同時에 이것이 佛國政變을 잣게하는 重要한 原因이되여잇다。今番에도 社會黨이 第一黨이된것은 事實이나 單獨內閣을 組織하기에는 너무도 微力하야 結局 共產黨支援諒解下에 中央派的色彩가 적지안흔 急進社會黨과의 聯立的人民戰線內閣의 出現을보게되엿고 블룸氏와의 交涉도不調로 社會主義同盟의 支持는엇지못하엿다하니 以上諸點으로보와 人民戰線新內閣에對하야 그名稱에符合한 異彩잇는政策은 期待하기困難한同時에 블룸內閣은 成立當初부터 弱體的缺陷을 包擁하고 잇는 늣김을갓게한다。

三

人民戰線新內閣이 어떠한政策을 쓰게되리라는것은 이미 그輪廓이드러낫다。卽 블룸氏는 日前에 組閣後에 施行할 政策으로 資本主義 機構內에서 漸進的 改革政策을 實現할것을 言明하엿고 五日初閣議에서 對外政策으로는 從來의諸內閣同樣으로 安全保障確立에 努力하고 對內政策으로는 法貨擁護及 社會政策的新政方針을 討議한것으로 보아 그內容을 知할수잇다。그리고 이番 閣僚陣容에잇서서 藏相만은 社會黨自身이나 外相及內相의 重要椅子를 急進社會黨出身으로 잡게하엿다는것은 過渡事情을 充分히알게한다。萬若 社會黨이 어대까지든지 黨의志操를 굿게지키고 漸進的改革을 目標로 나간다면 그政策遂行上 具體的問題에當面하야 左로는 共產黨과 右로는 急進社會黨과의 折衷이困難하야 블룸內閣은 結局 이에 由緣하야 瓦解될것으로 豫想되거니와 이것은 現在形便과 環境으로보아 不得己한情勢라하드래도 吾人이 여긔서 警告하고 십흔것은 從來列國諸政黨의 例를보면 野黨時代에는 進步的政綱으로 選擧民에 公約하엿다가도 一旦 政權을잡고나서는 漸次 右翼化한다는 事實이다。그리고 漸進的改革이라는 美名下에 無事主義로 現狀維持를 일삼는 各國의 社會黨이 그本來的主張을 實現한例는 거이업엇다는 事實을 忘却하여서는 안된다。英國勞働黨이라든가 獨逸前의 社會民主黨의 過去 및 現在를 보면 이것은 自明하여질것이다。그러면 社會黨을 中心으로한 佛國人民戰線內閣은 果然 列國의 社會黨이 犯한 過誤를 犯치안코 「漸進的改革」으로 所期의目的을 다할수잇슬가? 吾人은 그前途를 注目하려한다。

日本軍大陸進出로 英極東貿易衰退

日本이長江沿岸支配時엔 貿易은絕滅

利權擁護엔英米團結、軍備充實이必要

엑스프레스紙의論評

【倫敦五日發同盟】데일리·엑스프레스紙는 四日의 시티-欄에서 日本軍進出에 論及하야 如左히 述하엿다

英國貿易業界에서는 極東貿易이 漸次 制限되게 된것을 보고 焦慮를 禁할수업다 日本同業界는 自國의 勢力範圍內에서 外國貿易을 壓迫하고잇스면서 英領東阿、印度其他에서는 自國의 貿易擴張을 主張하고잇다 上海市會에서는 自國代表의 增加를 要求하야 압서 市參事會選擧에서는 現狀에 不滿을 느끼고 三人의 候補者를 세웟다 그런데 日本이 上海와 長江沿岸을 支配하게되면 그後의 貿易은 絕滅할것이다 現在 滿洲國에서는 日本同業界의 石油統制以來 英米兩國의 石油會社는 商事不能에 陷하엿다。이事實에 徵하야 英國貿易協會는 利權擁護를 爲하야 共同團結하는것을 認定할 必要가 잇스며 政府에對하야 商業的利益保護를爲하야 軍備를 充實하도록 要請하지안흐면 안될것이다

英兵暴行事件 大使館側善處回答

【北平六日發同盟】武藤書記官은 六日正午 英國大使館에 코-안書記官을 訪問하고 英國人의 日本人殺害現場을 目睹한 日本人二名에 關하야 中國公安局에서 調査한 有力한 供述書를 提出하엿다 이에 對하야 코-안書記官은 英國天津駐屯軍이 設置한 軍事查問委員會를 速히 開會하고 事件審議를 進行할 意向이라고 述하야 英國側도 多少 誠意를 示하게되엿다

勞働爭議善處를 新內閣에要請

佛勞働總同盟書記長이

【巴里五日發同盟】佛國勞働總同盟書記長레옹·쥬오氏는 五日夜 라디오放送으로 今回의 罷業에 關하야 人民戰線內閣에 善處를 要請하고 如左히 述하엿다

今回의 罷業에서 勞働者는 一致國家 權利回復을 要求하고 잇다 罷業團이나 各組合도 充分히 事實을 認識하고 事態惡化를 極力 避하지안흐면안된다 一方 人民戰線內閣은 速히 紛爭을 終熄시키도록 還濟업서 모든 手段을 講究하지안흐면 안될것이다

에리오新議長 就任演說

【巴里五日發同盟】開會第三日의 佛國下院에 잇서서에리오新下院議長은 恒例의就任人事로 左와 如히 演說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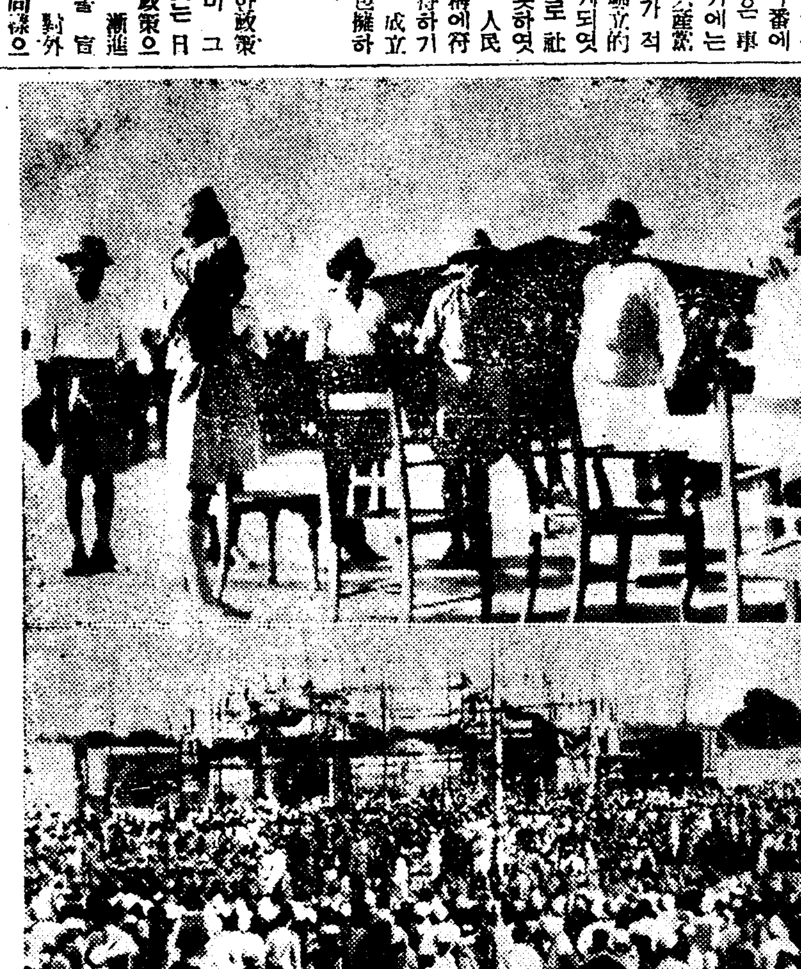
新議會의 不動한 任務는左의 三者라고 余는信한다

一、共和制社會制度存續

一、經濟復興

一、國內에 잇서서나 對外的으로나 平和를 維持할것

等이다 總選擧를 通해 佛國國民은 戰爭의 代價가 如何히 高價인가를 熟知하고 共和制社會를 擁護하기로 決意하고 잇다는것을 表示하엿다



◇印度國民大會 今年度의 第四十九回印度國民大會는 去五日 라크노-地方에서盛大히 擧行되엿다 寫眞은 義勇軍의營舍를 訪問觀察中인 간듸翁과 大會開會式中의 國旗揭揚式

失意의「에」國皇帝 伊首相과會見?

떠낫던依英策도虛事로失望

英國선意外로冷待

【倫敦六日發同盟】에디오피아皇帝하일레、셀라시에一世는 五日午後 이든英國外相과 會見하엿는데 다시 에디오피아公使말친博士도 同席하야 英國外務省에디오피아課長 피터슨氏와 會見을 遂하얏는데 皇帝는 以上의 折衝의結果 失望하고 近近自身이 羅馬에 進出하야 무솔리니首相과 直接交涉을 遂하기로 決意하엿다고 傳한다 무솔리니 首相은 過般 텔레그래프紙記者團과의 會見에서 에디오피아皇帝와交涉을 遂하고십다는意向을 表明하얏는데 하일레、셀라시에 一世도 五日 記者의質問에 對하야 外交交涉에 들어가기前에 兩國의 連絡을 取하기 爲하야 大陸에 赴하겟다고 述하엿다고하며 最近皇帝를 아디스아베바로부터 飛行機로倫敦에 모서올려고 햇던 佛人飛行家스트이에이氏가 五日突然倫敦에 到達한等等의 事實에서皇帝의 羅馬行說이 倫敦外交界에 流布되엇다 勿論 右報道는 아직 流言의 範圍를 나서지안코 今六日 에디오피아公使館에서 行할 外交團接見에 이든外相이 出席치안는等 에디오피아皇帝에 對한 英國政府當局의 接待는 意外로 冷淡하다 皇帝로서도 어떠한 新對策을 考慮하고 계신것이 아닌가 觀測된다 (寫眞은 에國皇帝)

에디오피아皇帝 外交團을接見

日、中、土、等代表出席

【倫敦五日發同盟】에디오피아皇帝하일레·셀라시에一世는 明六日 倫敦公使館에서 外交團을 接見하실터인데 藤井代理大使 中國 土耳其各大使 波斯公使等이 出席할 豫定이다 但 佛、蘇、亞爾然丁、智利各大公使는 倫敦에 잇지안키때문에 出席치못하고 이든外相도 缺席할 豫定이다 이든外相의 缺席은 여러가지 風說을 자아내고 잇는데 當該外相은 말하엿다 明日 選擧區에 가지안흐면안되므로 遺憾이나마 出席할수업다 따라서 크랑보온次官이 代理로 出席할터이다

墺王家復辟

佛政府絕對反對

【巴里六日發同盟】합스부륵王家復辟에關하야 佛國政府當局은絕對反對를 表明하고 四日夜 左와如한 意向을 表明하엿다

墺太利政府가 합스부륵王家의 復辟을 實現하기로 決意하엿다하면 유고슬로비아 체코슬로바키아 兩國政府가斷然 反對할것은 明白함으로 이러한 境遇 佛國政府도 兩國政府의 武力行動을 支持하지안흘수업다 이미 슈슈닉首相과 무솔리니首相과의 間에復辟에 關하야 完全히 諒解가 成立되엿다고 傳하는데 右報道는 갑작이 信憑할수업다

王家復辟 實現不可能

英政府側見解

【倫敦六日發同盟】墺太利政府의 합스부륵王家의復辟에對하야 아직 英國政府의意向을 打診한事實이업다고 確聞하나 英國政府側에서는 本問題에對하야 左와如한見解를 가지고잇다

墺太利政府가 합스부륵家를 復辟할境遇에는 小協商國 特히 유고슬라비아를 硬化하야 結局墺太利政府로서는 復辟에서 得한다가보다 차라리 失할바가만흘것임으로 아마 復辟을 實現할[illegible] 업슬것이다

팟쇼的右翼團體 國本社解散決定

平沼氏引退로自然崩壞形勢

今月中旬에正式聲明

【東京電話】日本愛國團體中 一大勢力으로 그目的하는 愛國強化運動外에 一般世上에서는 政治機構에도 隱然한 發言權을가젓다고 解釋되고잇던 國本社가 突然解散되게되엿다。이國本社는 平沼騏一郎男을盟主로 大正十三年三月 創立되어 陸海軍軍人、司法官、地方의首腦中堅을 主要한 構成分子로하고 널리 一般會員에는 全國에 散在한 百七十의 支部에 所屬하는 二十萬會員을 擁한 大團體인데 過般會長平沼男은 樞府議長就任과 함께 이會長을 辭任한것이 動機가되여 平沼氏업는 國本社에存續理由가 업다는 意見이 具體化한것이다 그解散理由의第一은 前記와가티 平沼男에依하야 國本社는 終結될것이라는 意見이 同男의 身邊에서 起한것 現在의 社會情勢는 國本社結成當時에 比하야 이미 大轉換을 示하야 그 目的하는바로『國本을 굿게하고 國體의 精華를 顯揚할것』도 이미 一段落、낫서 抽象論時代는 지나고 直接 政治에 觸하지안코면 意義가업는 時代로서 純然한 思想團體의 存續意義는 喪失되엇다는것이 同社理事三十二名의 總意에依한 結論인同時에 現實的으로는 平沼男의 뒤를 이을 會長에 適當한 人物이 업다는것이 이解散을 決定的으로 만들엇다 一兩日前부터 各理事는 解散調印을 行하고잇서서 今月下旬에는 그도 全部 끗나고 正式으로『國本社解散』을 聲明하기로 되엿다 (寫眞은 平沼男)

兩廣軍、改名同時에 首領部署를決定

西南執行委員會에서

【廣東五日發同盟】西南執行委員會는 中央의 討伐對策에 關하야 重要協議를 遂하엿는데 右協議에서 兩廣軍의 改名이 論議된結果『中華民國國民革命抗日救國軍』이라고 改稱하기로 決定하고 各首領의 部署를 如左히 決定任命하엿다

任第一集團軍總司令 陳濟棠
任第四集團軍總司令 李宗仁
任第四集團軍副總司令 白崇禧

그리고 雲南、山東、河北省等에서 響應者잇스면 省마다 集團軍의 名稱을賦與할터로 西南側의見解에 依하면 從來의 蔣介石氏의 中央集權策에依하야 極度로 그生存權이 拒否되여잇섯다 前記 各省地方은西南軍今回의 蹶起에 依하야 必然的으로 相當히 動搖를이르킬것으로 傳하고잇다

民政小山、篠原兩氏 北中及滿蒙에派遣

【東京電話同盟】民政黨에서는 北中及 滿蒙國境의 緊張된現狀에 鑑하야 實情調查의 急務를 認定하고잇는바 五日首腦部會議結果 小山谷藏 篠原陸朗의兩氏를 最近 北中及滿蒙國境에 派遣하기로되엿다

日滿工業條約 樞府委員會附託

【東京電話同盟】過般樞府院에 御諮詢된 日本國과 滿洲國間의 工業所有權相互保護에 關한 協定은內容이 相當히 重要함으로 平沼樞府議長은 六日 櫻井錠二氏를 委員長으로 指名하고 左의 七名을 委員으로 委託하엿다 第一回委員會는 小川商相이 旅行中임으로 歸京을 待하야 五日頃에 開催할터이다

◇委員長 櫻井錠二
委員 有馬良橘
同 河合操
同 原嘉道
同 石塚英藏
同 坂本釤之助
同 林權助

日滿條約調印準備次 山越氏滿洲出張

【東京電話同盟】對滿事務局事務官 山越道三氏는 治外法權撤廢에 關한 事務打合其他一般狀況視察次 六日午後三時發 滿洲國에 出張하기로 되야 六日 如左히 發令하엿다

對滿事務局事務官 山越道三 滿洲國에 出張을 命함

廣東軍無抵抗裡 湖南衡陽을占領

西南主力의衡陽集中을기다려

本格的軍事行動開始

【廣東六日發同盟】湖南省衡陽에 向하야 進軍한 廣西第四集團軍第十五軍長夏威氏麾下의 一部는 아모抵抗을 밧지안코 六日朝衡陽을 占領하엿다 粵漢鐵道에 沿하야 北進中인廣東第一集團軍第二軍張達氏麾下의 衡兵도 今日中에 入城할 豫定이다

【廣東六日發同盟】湖南의 要衝 衡陽을 占領한 西南軍은 爲先 同地에 軍隊를待機케하고 專혀 後續部隊의 來着과 後方連絡、兵站線確保를 圖하야 軍備充實을 기다려 總指揮 白崇禧氏自身이 陣頭에서서 第二段의 軍事行動에 옴길것으로보인데 主力의 衡陽到着까지에는 일너도 一週間 乃至 十日이 걸릴터인바 그때에 本格的事件이 展開될것으로 豫想된다

時事漫談

墜落될 念慮가 充分히잇소

滿洲中央銀行 正副總裁辭職

【東京電話同盟】滿洲國中央銀行總裁榮厚와 副總裁山成喬六兩氏는 압서 辭意를 滿洲國에 表明하고잇던바 今回 이後任으로 總裁에는 現日本銀行理事田中鐵三郎氏 副總裁에는 滿洲國人으로써 充當하기로되어 兩三日中正式發令될터이다 그런데 來十五日 任期滿了가되는 同行理事富尾、五十嵐、竹澤의三氏도 이機會에 勇退하기로되어 이後任으로는 大澤日銀考查部主事 西岡動銀調查課長其他一名이 任命될터로 來十五日頃 臨時總會를 開한後 正式決定될터이다

田中理事後任

岡田大阪支店長有力

【東京電話同盟】別項 日本銀行理事田中鐵三郎氏의 滿洲國中央銀行總裁內定에 伴하야 벌서後任理事를 物色中인데 十中九分은 現大阪支店長岡田才一氏가選拔될 模樣이다 日銀에서는 近近臨時總會를 開하고 田中理事의 辭任과 後任理事補充을 附議決定할터이다

勅令十二件公布

【東京電話同盟】압서 閣議에서 決定한 內務部內臨時職員設置制中改正件以下 左의勅令十二件은 上奏御裁可를 經하야 六日官報로써 公布하고 計理士法施行令中改正件은 七月一日부터 施行하기로 되고 其他는 卽日施行되엿다

一、內務部內 臨時職員設置制中改正件(事務官、技師、屬、技手增員)
一、營林局署官制中 改正件(技師、技手等增員)
一、國有林產物販賣所官制中改正(屬、技手增員)
一、大正十二年勅令第三百九號、獸疫調查所臨時職員增置件中改正(屬增員)
一、商工部內 臨時職員設置制中改正(事務官、技師、屬、技手等增員)
一、臨時產業合理局官制中 改正(事務官、技師減員)
一、拓務省에 臨時職員增設件(拓務省에 事務官、屬增員)
一、關東局部內 臨時職員設置制中改正(事務官、技師、屬、技手等增員)
一、關東州地方待遇職員令中改正(產業職員增員)
一、計理士中改正(統計實地調查令中改正)

聯盟理事會招集 來九日正式決定

【倫敦五日發同盟】聯盟理事會議長이든英外相은 二十六日 聯盟理事會를 招集하기로決定 各理事國政府에 提示하엿든바 理事國도 異議업다고 解釋되므로 九日에 正式決定할 模樣이다

英海相更迭 正式으로發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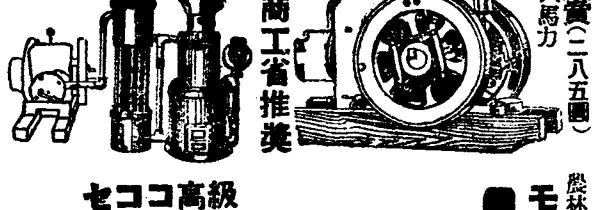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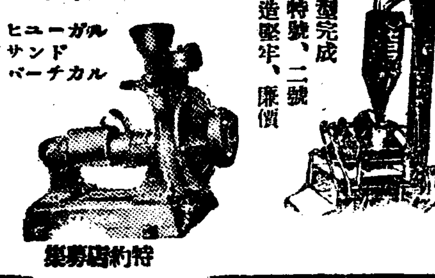
【倫敦五日發同盟】海相마이어-스·모셀卿의 辭職한旨를 五日午後英國政府로부터 正式으로 發表하엿는데 後任은前外相사뮤엘호어氏가 就任할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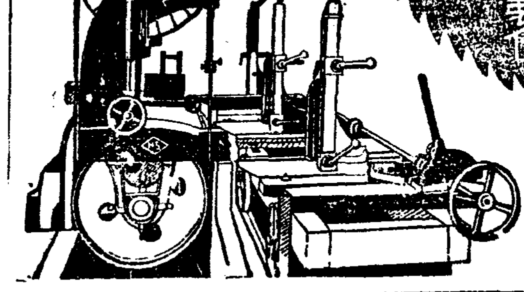
人事·集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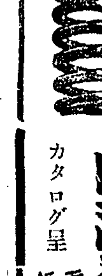
▲宇垣總督 天野秘書官帶同來八日發 一週間豫定으로 濟州島視察

▲小磯朝鮮軍司令官 宿痾인 神經痛으로 療養次 夫人同伴今六日 午後三時六分 龍山驛發 노조미號로 山口縣 俵山溫泉에 轉地療養後 月末歸任豫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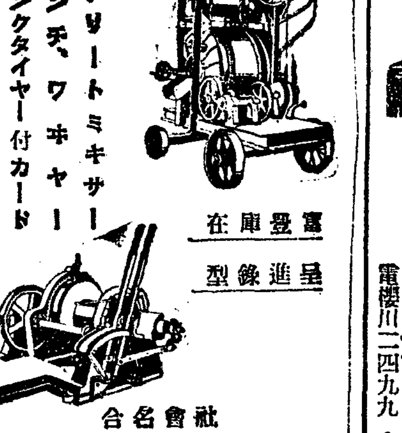
▲金光氏(朝鮮商業者調查所所長)同調查所設置人事次本社來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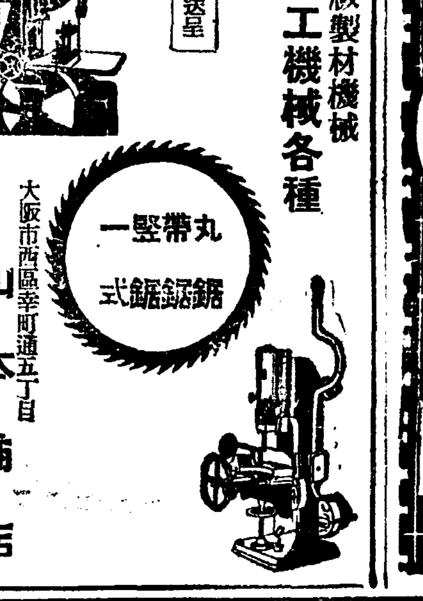
機動發油重油軽便 ウェム 木炭ガス發生機
最新式小型輕量2、4、5、6、8、10、15馬力型・木炭一貫目で石油一瓦の出力あり
横型簡單一機取 燒完全燃料 重油
新發賣(二八五圓) 五・六馬力
商工省推奬

セココ高級 各種ポンプ
ヒユーガル サンド バーチカル
大阪市西區江戶堀北通四丁目 中央貿易合資會社 電話長土佐堀二三六一
農林省推奬 モンデン製粉機 新型完成 特號、二號 構造堅牢、廉價
特約店募集


商報呈
細田商事合資會社 大阪市西區北堀江三番町二
各種製材木工機械專門製作 帶鋸工具類製材用品 直輸入商


スプリングと鋼線

山添發條株式會社 大阪市南區內安堂寺町二丁目 電話東六六四二一四 振替大阪八一九〇〇 カタログ呈

機械ト工具製造卸 合名會社 八木機械工具店 大阪市西區立賣堀北通四丁目 電話新町二六〇四番 振替大阪三九二四九番 (カタログ送呈)

機械ト工具製造卸 大阪市西區立賣堀北通四丁目
コンクリートミキサー
ウヰンチ、ワヰヤー
ノーパンクタイヤー付カート
土木建築用機械一式
寫眞送呈 型錄進呈

合名會社 嶋屋商會 大阪市西區立賣堀北通四丁目 電話新町六九五番 振替口座大阪二六一四

高級製材機械 木工機械各種 商報送呈

大阪市西區幸町通五丁目 山本商店 電櫻川二四九九・四五九二

食料紅 オブラード バター 製菓材料 菓實香料 商報贈呈
大阪市西淀川區大仁本町二 西本商店

밀국수·소바·豆腐其他여러가지반찬에고초가루
(고 초 가 루)
蕃椒粉

虎岩堤船遊배顚覆 十五名一時溺死

廿名中四名生還 一屍體發見

六日午後忠州의慘事

【忠州支局電話】 륙일오후두시반쯤 충북충주읍에서 약오리가량되는 호암제(虎岩堤) 저수지(貯水池)에서 충주읍대수정(大手町)보래제유소(寶來製油所)주인 아들 윤보근(尹寶根)(二四)등 이십명이 선유를하고 놀다가 배가 전복되야 그중네사람만 사러나오고 전긔윤보근외열네명은 그대로 빠저죽엇는데 시체는단한개만건저내고 아즉남어지는 시체조차 건지지못하야 저수지일대에는 빠저죽은사람들의 가족이몰려들어 갑작히 눈물의바다를일우엇다

第二報 【忠州支局特電=六日午後九時十分着】 선유배에탄 승객의수효는 아직도 확실히 알수는업스나 삼십이명가운대에서 그과반수는구원을바덧고 륙일오후일곱시까지에는 겨우여섯사람의 시체를 발견하엿슬뿐이다 그리고목하여섯척의 경비선이 출동하야 수사중이다

六日、會寧驛構內에서 貨物車三輛脫線

一時는騷然、人畜死傷은幸無 木材滿載로復舊困難

【會寧支局特電】 륙일오후네시경에 회령역구내에서 목재(木材)를 만재한화차(貨車)삼량(輛)을 체화하든중, 돌연그화차(機關車)의 뒤에잇든 화차세개가 한거번에 모다탈선하야 일시는 매우소란한상태를 이루엇섯스나 다행히 인축의 사상은 업섯다하며 목하그복구에 노력중이라한다

小兒失路兩件

륙일 오전 여덟시경에 시내장사정(長沙町)이십사번지의이호함내호(咸乃熹)의 외손자인 리희성(李熙成)(六)이가 학교가는그의형을 따러나갓다가 길을 일헛더니 그리치안코 어대로 길을 일헛는지 집에 돌아오지안는다하야 소관종로서에 그수사원을내엇다 ▲양주군 구리면 갈매리(葛梅里) 류씨(柳氏)의장녀 전정운(全貞雲)(六)은륙일정오에 서울와서 시내 서대문정(西大門町) 일정목압중서길을일코 간데온데가 업다고한다

城北町에山火

륙일오후다섯시경에 시내성북정(城北町)이십오번지의 일호 부근인가에서 약사정(町)가량떠러진 국유림에서 불이나서 약삽십분가량 맹렬히 타올라갓는데 급보를듣고 소방대가 출동하엿스나 물을 대일수업서 동내주민들이 극력활동하야 겨우불길을 잡엇다 약이백여평을태우고 소손되여 손해도 상당한데 그원인은 아직자세히 알수업서 소관동대문서에서 조사중이다

새로建築할때에 알아두어야할멧가지

市街地建築取締의解說 ③

第三、建築은어떠한 構造를 要하는가?

建築物의 適否는 保安衛生上重大한 關係가 잇스므로 基地構造設備等에 對하야 相當히嚴重한制限이 되여잇다 이制限의主要項目을들면

(甲) 基地에關한制限

一、建築物의 建築面積은 建築物의 基地面積에 對하야 十分之七의 比例를 너머서는안되다 그러나 第四項에서 말한바와가튼 地域이 指定된境遇에는 居住地域은 十分之六 商業地域은 十分之八의 比例로된다

그러나 左와如한 境遇에는 이比例로 하지안하여도조타

(一) 角地로 各幅員 六米以上 其和二十米以上의 道路에 接하고 또 面積千平米以下인것

(二) 基地周圍의 三分之二以上이 前各號의幅을 有한길에接한것

(三) 公園 廣場等에 接하야 前各號에 準한것으로 認하는것

二、建築物의 基地는 特히 道知事의 許可를 받는것以外는 隣接한 道路境界의 路面보다 높게하고 建築物의 周圍및 地盤面도 周圍의 地盤面보다 높게하지 안흐면 안된다

三、塵埃類로서 埋立한 基地는 그地盤에서 노피 〇、六米以上 土石類로써 땅을 도두지 안흐면 안된다 그러나 基地가 濕潤한때는 다시 땅을도두어야된다

四、基地에는 雨水及汚水를 排泄又는 處理할 適當한 設備를 要한다

(乙) 便所 우물等에 關한 制限

一、住居에 供하는 建築物의基地에는 반드시 便所를 設備하지 안흐면 안된다 그構造는 樋及周圍를 耐水材料로써 맨들고 汲取口는 密閉할수잇는 裝置로하고 地盤面에서 〇、一米以上 높게하고 또 道路에 面해서는 안된다

그러고 窓은 鐵網其他 適當한 防蟲設備를 要한다

二、便所又는 畜舍에서 排出하는 汚物의 槽는 耐水材料로 築造하고 뚝껑을 맨드러두지 안흐면 안된다 그러고 그汚物은 下水道에 流下하는것을 禁하야 道知事가 承認한 汚水處理槽를 設置한 때는無關하다

三、우물(井)과 汲取便所又는汚物槽의 距離는 原則으로 五米以上의 距離를 두게하고우물가에는 池上水의 滲透를防禦하는 構造로하고 井筒은周圍의 地盤에서 노피 〇、一米以上으로하야 覆蓋를 設하지 안흐면 안된다

四、道路에 沿한 집옹 露臺等에는 適當한 樋를 두어서下水溝에 排水할 設備를要한다

五、浴室이라든가 물을 흘리여내리우는 곳 가튼 常用水를 使用하는 場所는 地盤下水溝樋等을 耐水材料로 築造하지 안흐면 안되다

(丙) 主要構造에 關한 制限

一、建物의 基礎는 被害를 避할 構造로 할일

二、建物의 主要한 기동(柱)은 防腐方法을 쓰지안흔때에는 堀立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또 기동 下部는 基礎에 緊著한것外는 土臺又는 튼튼한 裝置를 할일

三、建物의 壁體가 直接土壤에 接한 때는 그部分은 耐水材料로써 築造하지안흐면안된다

四、主要構造用木材가 石、벽돌 『콩크리트』土類에 接한 部分은 防腐方法을 쓰지 안흐면 안된다

그러나 木造建築物의 壁에 接한 木部는 그 必要가 업다

五、建築의 各部分은 그上部의 무기에 견딜수잇는構造로할일

(丁) 노피에 關한 制限

一、煉瓦造 石造及木造의 建築物은 노피 十三米(四十三尺) 첨하노피 九米(三十尺)를 木骨建築物은 노피八米첨하 노피五米를 너머서는안된다 따라서 高層建築은 鐵筋콩크리트等로 짓는것 밧게는 업스나 그 許可된 限度內에 잇서서도 前面道路의幅員이 此에 伴하지 안흐면 建築할수 업다 卽 建築物의 各部分의노피는 그部分에서 前面道路幅의 水平距離의 一倍半을 넘지안코 또그前面道路幅의 一倍半에 八米를 加한것을 最高限度로한다

但 水平距離一倍半은 住居地域에 따러서도 그노피의 制限이잇다 卽 住居地域에는 二十米其他의 地域은 三十米를 너머서는 안된다

三、만약 其他가 幅員이 갓지안는두개以上의 道路에接한때는 幅이 적은道路는 큰道路와 同樣으로 取扱한다

四、道路幅의 境界線이 建築線과 一致하지 안는때는 道路幅員의 規定은 建築線을가지고 境界線으로看做함

五、煙突、棟飾、避雷針、旗竿等屋上에 突出하는 物件의高는 建築의 高에 加算치안코나裝飾塔求景塔 屋窓、昇降機塔水槽等의 屋上突出部는 그部分의高의 五分之一만을 建物의高에加算함 但그算入치아나하는部分(卽五分之四)의 面積의合計가 建築總面積의 十分之一以內되일을 要함

六、社寺建築物 工業用建築物煙突、求景塔、鑛重機 水槽、瓦斯槽 電柱類로서 道知事가 支障이 업다고 認定한時에는制限規定에不拘하고許可할을得함

七、特種地點에잇는 建築物의高와 道路幅에對하야서는 左와如히 特例를認定한다

가、公園、廣場、河、海의類에接할時에는 其對側道의距離를高의 限度로함

나、前面道路의 對側에公園、廣場、河海의類가잇는時에는其對側까지의 距離와 前面道路의幅員의和를 超過치안는限度內에서 規定第六十九條第一項의 所謂道路水平距離의 一倍半을 二倍半까지 第百四條의 住居地域에잇서서의 一倍四分之一을 二倍까지로함을 得함

다、地盤面이 前面道路의 中央보다 〇、六米以上노픈때에는地盤面의노피로부터〇、六米突을 減한高의 二分之一의位置로서 前面道路의 中央으로 看做함

라、道路의 終端에 位置하는時에는 그道路幅員의 一倍四分之一에 相當하는 幅員을가진道路에 接한것으로看做함

八、그리고 特히 必要잇는때에는 道知事는 區域을定하야建物의 最高最低의 노피의限度를 定할수가잇스나 이區域은 아즉指定되지안헛다

(戊) 換氣採光에關한制限

一、天井의高는 二米突以上이라야된다 但濕突은 一、八米突까지나춤수가잇다

二、마루의 노피는 防濕設備가 잇는境遇를 除하고는 〇、四五米突以上이라야만된다

三、木造마루에는 마루아래에換氣設備를要한다

四、地階의 居室은 마루또는마루아래를 耐水材料를 가지고 築造하고 더욱壁面及 床下에 防濕設備를要한다

五、窓其他의 採光面의 有効面積은 室面積의 十分之一以上으로하고適當한換氣設備를 하지안흐면안되다

六、軒처마와 遮陽其他 居室採光或은換氣를 顯著히防害하는것이 잇슬때 또는衛生上特別한必要가잇다고 認定하는때에는 道知事는 採光面또는換氣設備를 命할수가잇다

(己) 防火避難에關한制限

一、居室의窓에 쇠창살 鐵柵等을 대일때에는 달니避難設備가잇는지 또는特히 許可를어든境遇以外에는 避難設備裝置를하지안흐면 안된다

二、建築物의出入口及窓等의門짝은開閉할때에 建築線으로부터 突出하지 안토록 하지안흐면 안되다 그러나 道路境界의路面으로부터 三米以上의 노피를 둘때에는 상관업다

三、階段은 特殊의用途에 專用하는것外에는 다음制限에依함

가、階段及踏場의幅은丙法〇七五米以上

나、蹴上의 놉피는〇、二三米以下

다、踏面의幅은〇、一五米以上

라、놉피四、五米를 超過하는 階段은 놉피 四、五米以內만콤 踏場을 設置할일

마、廻段은 階段下部에 지되 段數는 四以下

바、昇口及降口에는 발머무는곳(足溜)를 設置할일

사、木造建築物에는 三層以上에 三〇平方米以上의 居室面積이 잇는곳이면 各階마다二以上의 階段을 設置할일

아、避難階段은 幅員〇、六米以上으로하되 建物에 接하지안혼部分에는 欄干을 設置하고 또直接空地에 接하게할일

七十高齡고리키氏 感冒에肺炎併發

五日夜부터는心臟도衰弱 重態로再起는難望

【모스코五日發同盟】 적색문단의거벽 『막심、고리키-』씨는 지난일일 류행성감긔에 걸리여 돌연중태에 빠젓는데 오일밤에는 급성폐염까지 생기여 심장이쇠약되고잇서 나히가 칠십세나되는만큼 다시일어나지못할듯하다고한다

(사진은고리키기(機)를바라보는 고리키씨)

撫順、奉天等地에 "民族××의"過激文書

上海를 根據地로한 主義者들의 猛活動 關東軍當局事件重視

최근 만주국각방면에 민족××(民族××)이라는 내용의 과격한팜프렛트를창간호와 그제이호가 우송되여오고 또무순(撫順) 봉천(奉天)등지에 다수의 격문이 배포되엿는데 이것은 조선의 민족××을 표방하는 국제공산당계통의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주의자들까지 포함하여가지고 상해(上海)를 그근거지로삼고 만주국내에 맹활동을 개시하려는것으로 보고 관동군(關東軍)당국에서는 이들의 거동을 엄중경계하고 잇는중이다

往十里驛落成

왕십리역(往十里驛)은 룡산(龍山)과 청량리(淸凉里)의 두큰정거정의 중간에잇서 승강객의 취급은 그리중요치안이나 화물의집산이 만허 작년도 이역에 도착된 화물은 약칠만돈(噸)으로 화물취급 삼천량(輛)은이라는 굉장한것으로 건물에협착을 극도로 늣기든역에서는 공비이만오천원을 드려 작년십일월상순부터 개축(改築)에 착수하야 지난오월십오일에 훌륭한건물이 준공되엿슴으로 근처주민들은지방발전에 큰도움이 될것을 깁버하는한편 유력자이십오명이발기가되여 오일아츰열시부터 역전광장에서 성대한 개축락성축하회(改築落成祝賀會)를 거행하엿다하며 뒤를이어 륙일부터팔일까지 역시 전긔장소에서사흘동안이나 여흥으로 가무(歌舞) 각희(脚戲)등이 잇다고한다

全釜山女子運動會

본보부산지국주최인 전부산녀자운동회(全釜山女子運動會)의 후원자와 상품기증자씨명은 다음과갓다

▲大會後援者 韓羽淳 金琁琭 李東熙 魚乙彬會社 李貴興 李至載 金在俊 金昌圭 金鳳鎬 金崙鎬 金榮喜 朴泰俊 大洋貿易社

▲商品寄贈者 釜山洋品店 天命堂 尹滋寶商店 鄭仁五商店 大和고무會社 實業고무商會 金長瑛商店 日大商店 和信配給所 鮮一紡織會社 天一藥房代理店 廣濟藥房 山口屋洋品店 釜山化粧品會社 福本洋襪工場 許龍大 朝鮮日報本社

中等庭球의豪華陣 果然!覇權은어데로

徽文、中東、普成、養正、公民等各勝 佛專主催●本社後援中等大會初日

중앙불교전문학교주최와 본사후원의 제이회전조선중등학교정구대회제일일은 륙일오후한시이십분부터 시내명륜정(明倫町)중앙불교전문학교코-트에서 참가한 십사개교의 팔십사명선수들의 열전으로 작보이후의 각교전적(各校戰績)은 다음과 가트며 이날은 일몰(日沒)로인하야 제일회전을 전부마치지못하고 금칠일오전아홉시부터 계속거행하게 되엿는데 과연 어느학교가 영예스러운우승권(優勝權)을 획득할것인가 자못 흥미는 놉하저잇다

◇第一回戰

【養正】勝 【中央】 [第一라운드]
(任完淳 尹泰鉉) 4……0 (吳鉉鍋 申相雨)
(朱漢鍾 崔世元) 4……1 (崔炳奎 朴鍾泰)
(金成學 尹禹鉉) 4……2 (金元道 鄭一圭)

【普成】勝 【京工】 [第一라운드]
(李昌受 宋在鳳) 4……0 (金台鎬 金龍雲)
(辛寅根 田文秀) 4……1 (金鍾千 張午淳)
(李璨泰 黃秉坤) 4……1 (宋錫吉 鄭晉鎬)

【徽文】勝 【一高】 [第一라운드]
(朴殷緖 金演興) 4……0 ([illegible])
(申東鉉 金鎭連) 4……0 ([illegible])
(李景勝 金亨泰) 4……2 ([illegible])

【善隣】【中東】勝 [第一라운드]
(張萬吉 方應基) 4……3 ([illegible])
(金炳斗 宋在百) 4……2 ([illegible])
(川口則男 丁浩鎭) 2……4 (安秀善 申東一)
[第二라운드]
(張萬吉 方應基) 0……4 (安秀善 申東一)
[第三라운드]
(金炳斗 宋在百) 3……4 (安秀善 申東一)

萬人待望의 翠書中代表作 洪吉童傳 朴泰遠著 [illegible]成社

土地景氣를노리는 大金詐欺漢送局

僞造文書로土地賣喫

【永登浦】 토지경기에 투기업자한 신흥 번도(繁都) 영등포에는 최근 사기한이 발호하야이 피해자를 내이고잇다 그일례는 시내영등포정 사법서사(司法書士) 문형재(文衡在)씨가 수개월전에 시내반전선사랑(半田善四郞)이란 사람에게 입만삼천원의 토지를 매수하고 매도증서만 밧아두엇슴뿐이고 아직명의변경의 등긔는내지안헛슴을 탐지한 본적병고현신호시금서정(兵庫縣神戶市琴緖町)이정목십삼번지 주소시내영등포정(永登浦町)사백사십삼번지 장평방자(長平芳子)방에 류숙하고잇는 무직 곡전우삼태랑(谷畑宇三太郞)(四七)이가 교묘하게 문씨의인장을 위조하야 문씨로부터 부탁바든것처럼 꾸며가지고 문씨의명의로 변경되기전에 매매계약에대한 증명서를 위조이장의 행사로발행한후 이것을 전긔반씨에게 보여보이고 감쪽가티 속여넘겨서 매주(買主)의긔명인을 매도증서를 재발행케한후 이것을 시내모주간신문사내전달효(內田達孝)씨에게 팔어 계약금천원을 바더먹은것을 지세납세고지가 올때가되여도오지안는것을 수상이역인 문씨가 전소유자 반전씨에게 자세납부여부를 다진일노발각되여 드듸여고소가되여 이래영등포경찰서 신사법주임(愼司法主任)의 손에 취조를밧다가 지난사일 검사국으로 넘겨버렷는데 그범인은조화이면중에도 유가증권위조행사와사긔횡령에의 죄명으로 경성지방법원에서 긔소유예의처분을 바든일이잇는 상습자라고 하며 일반은특히 주의하는것이 조타고한다

문둥病患者暴行

八歲兒를山中에誘引 生膽을딸랴다 悲鳴에發覺

【釜山】 경남 남해군남해면차산리(南海郡南海面車山里)김홍건(金洪根)의장남 영석(永碩)(八)이가 지난 이일오후오시경에 자그집압길에서 놀고잇슬지음 어떤청년이와서 과자를 사주겟다고 감언으로 그동리뒤산보리밧까지 데리고가서 돌연몸을눌러서 압살하랴함으로 고함을질르든바 그부근에잇든 그동리농부가 비명을듯고 달려와서 구조하는 울시에 그자를붓잡고 주재소순사에게 인도하야 방금엄중한취조를하고잇다 그는 동군설천면문의리(雪川面文義里)정금출(鄭金出)(二九)이라는데 라병으로 고민하든중 사람의 생담(生膽)을먹으면 전치된다는 어리석은말을듯고 그와가티 생담을 끄내랴다가 발견된것이라한다

『양잿물』을석근 『호떡』과中國麵

仁川署서調査

【仁川】 변관매고 사만오천원을돌파하얏다는 인천의『호떡』가리면에듯기에 놀라운소식이잇다이에 인천서홍(洪)의생주임은극비밀리에 시내『호떡』과 중국료리점을 조사하야 양잿물을넣다수압수하야노코 방금 취조중이라는데 그자세한내용을듯건대『호떡』과 또는국수를 밧죽할때에중조(重曹)『소다』를 너어만드는것을 가격관계로 양잿물을 조곰식석거나 또는『소다』와 양잿물을석거、코만든다하야 사람에게조치안흔영향을줄뿐아니라 심지어중독까지되는폐단이대단히만타고한다궁세민층에서가장만히사용되는 음식물이라하야 엄중조사하야철저히 박멸하려는대 일반적으로도 만흔주의가잇기를바란다한다

普專의猛烈한攻擊 佛國艦隊軍慘敗

實力의差·對零으로

◇寫眞上은 普專과佛艦軍의 記念撮影、下는 그의試合

蹴球의參客 佛艦西極東艦隊旗艦『라모트피케』號乘組員과 普專과의國際蹴球戰은 昨六日午後三時五十五分부터 京城運動場에서 玄正柱(主審)鄭龍洙 金有亮 (線審) 三氏審判아래 開戰되바 普專前衛隊의 銳意的攻擊에 佛艦軍對敵키어려워 終始守勢로 당하야 前半四對零 後半五對零의 원차이든게임으로 無味乾燥하야 보는사람들로하여금 欠伸이自發하게되엿다

【戰況】 實力의 差判然하야 期待바든 佛艦軍無策한 挑戰으로餘地업시 崩潰되여 前半六分에 普專OF裵宗鎬君의 矢으로첫골을너흔後 十分에RI朴孝濟君의헤딩으로 또 一點을 加하야 乘勝長驅之勢를 보이며 十三分에 林暢植君、三十六分에 朴孝濟君이 各各 得點하야 前半은 四對零으로 마치고 後半에드러가 普專의攻勢 더욱 熾烈하야 九分에 OF裵君、廿分에 LI林君、廿四分에 RI朴君、三十分에 또 RI朴君이、二十九分에 LI林君、四十一分에 RI朴君이 連續得點하야 結局 對零으로 普專軍大勝하엿다 (께임九十分間)

【普專】 LW 孔敏來 LI 林暢植 CF 裵宗鎬 RI 朴孝濟 RW 宋基命 LH 金炳禑 CH 洪完植 RH 李鍚漢 LF 玄孝變 RF 朴奎禎 GK 李相再

【佛艦】 이덱버-쉐유롱방버-프 데리-류씨릴 메멘올비크리콘돌멜비케

올림픽後援會서 千六百圓을支給

朝鮮올림픽後援會에서는 代表選手의積極的後援을위하야 記念胸章과手巾을製作하야 全朝鮮에 發賣하고잇섯는데 全部賣盡하야利益金이 一千六百五十圓十九錢에達한바 六日午後一時부터 總督府第二會議室에서 處分方法을協議한結果 朝鮮出身의孫基禎 南昇龍 中村(陸上) 李性求、廉殷鉉、張利鎭(蹴球) 李奎煥(拳鬪) 金容植(蹴球)各選手에게旅費로支給하는外 日本選手團의旅費 中央團體經費寄附等을 모다決定하엿다

平壤庭球團創立

【平壤】 平壤府內 庭球同好者들로 平壤庭球團을 創立햇다 지난三日午後八時부터 朝鮮日報社平壤支局 上層에서 庭球關係者二十餘名이 會集하여 平壤庭球團 創立總會를 開催하고 團則通過 任員選擧 今後事業等을決定하고 同十一時頃에 散會했는데 任員은 다음과가티 決定되엿다 또한 別個工作으로 西朝鮮庭球聯盟을 結成코저 準備委員도 選擧했는데 平壤에 庭球團體가 업서 極히 遺憾으로여이든바 今次의 平壤庭球團의創立으로 庭球界의 大躍進을 보기에 일으렀고 따라서 一般의 期待는 자못 큰바잇다한다

百五十萬弗拳鬪戰

【뉴욕同盟發】 全世界拳鬪界의人氣를 總集中한 『褐色의爆擊機』『조·루이스』와 獨逸의『맥스·슈메링』의 타이틀前哨戰은 來十八日밤 뉴욕에서 擧行할터인데 同拳鬪戰의 『링사이드』券四十弗이라고 發表하엿다 選手權에 直接關係업는 試合에 이러한 莫大한 價格은 『뎀씨-』『터니-』等의拳鬪黃金時代以來 처음보는高價이다 大衆席入場券은 三弗이라는바 總額은 百五十萬弗에 達하리라한다

今日의運動

▲庭球=專門學校리-그戰 午前九時 京城運動場코-트

▲陸上=第五回府內男子中等校學年別陸上大會 午前九時 京城運動場

▲武道=第十一回專門校武道大會 午前九時光化門通警察官講習所

▲運動會=徽文高普內運動會午前九時 同校庭에서

運動界集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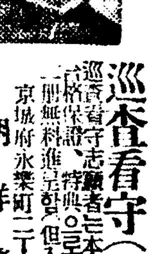
▲全朝鮮아마튜어拳鬪聯盟代表委員會는 今七日午後二時부터本社 會議室에서 開催할터이다

凱旋力士의歡迎會 盛況

初代의力技代表로 東京에遠征하야東洋的覇權을 누리고 도라온金晟集(徽文)君과 金容星(中央體硏)兩君의 祝賀歡迎會는 朝鮮力技聯盟과 中央體育硏究所의共同發起로 六日午後七時 太西館에서 二十五名이 參席한가운데 力聯會長金圭冕氏의 開會辭로열리어 李丙學氏로부터 兩選手의紹介가 끗난後 徐相天氏의戰況報告와 李奎遠 張權兩氏의懇曲한 祝辭가잇섯고 니어서金容星君의 答辭로式을 마치고 食卓에드리가 和氣滿滿한 가운데 同八時半에 散會하엿다 【寫眞은 同會席】

金銀白金 福

株式會社 石福商店平壤出張所 平壤府旭町 電話一三一四番 電信略號(ヘーイセウイシフク) 本店 東京市下谷區練塀町



巡査看守(講義錄) 巡査看守志願者는本會講義錄卒業에依하야合格保證、特典으로鮮人巡査試驗問題集等一冊無料進呈함(但入會者에限함) 京城府永樂町二丁目二番地 朝鮮警務學會 電本(2)三〇三〇番 (規則書卽送)

株式會社 漢城銀行 本店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十四番 電話本局(2)二一六一番 振替口座京城二一〇五番 支店 京城南大門、同東大門、同西大門、同本町 水原、驪州、大田、永同、大邱、釜山、開城 出張所 延安、平壤、平壤大和町支、素砂出張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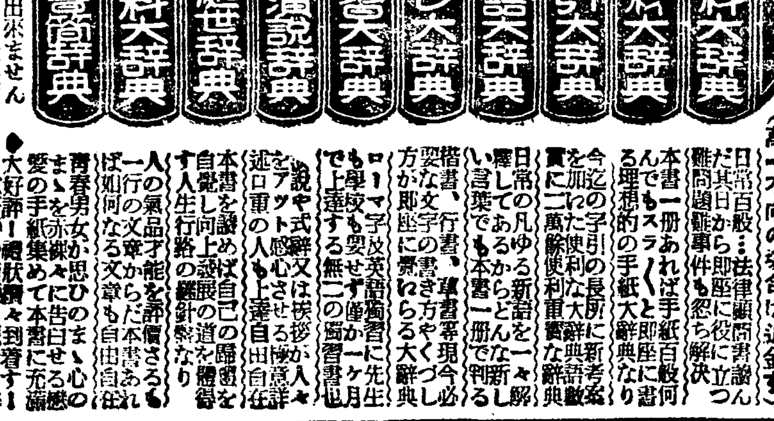
六月四日ヨリ八日迄特別豪華番組 晝夜二回續返映寫正午開演入替無 次週封切…パ社Gウーマン、パ社花嫁の感情 PCL坊ちゃん 今週の映畵 メトロ社超大作日本版 ロイデルルース監督作品 踊るブロードウエイ エリノアボウエル ジャック ベニイ ロバートテイラー主演 世界一の女性タップダンサア エリノアボウエルを迎えてメトロ社が完成した新らしい音樂踊りの素晴らしき映畵

六月六日晝間부터三日間大公開 特別超特作品 非常週間 每日三回晝夜興行 正午十二時부터 六時半까지 續映 夜間八時始映 大衆料金 階上十五錢 階下十錢 따라마운트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촬-스·비드-氏監督 大活劇 無線非常線 主演 호레트만구마례-사-가이스단데이운 梗槪…變色自動車輕裝自動車機關銃을使用하야地方銀行을襲擊하는强盜團이라稱하는장그의橫行 米國警察隊가各地方으로거리마다라디오連絡大活躍 朝鮮키네마社特作品 原作脚色監督春史 朝鮮名畵 (影)그림자 主演 俳優羅雲奎氏 林生員氏 尹逢春氏 全世鋼氏 玄方蘭嬢 와나社特作品無聲映畵 월리암보-데잉氏監督 探偵劇 殺人街 性格名優몬트-부름氏主演 助演 베테-갈푸슨嬢 여러분의 第一劇場 鍾路五丁目 電光一七三番

若草映画劇場 電本五三五四番 ▲PCL超特作オールトーキー 吾輩は猫である 山本嘉次郎監督作品 德川夢聲 丸山定夫 千葉早智子 藤原釜足主演 人間及人間生活に對する深刻奇警なる觀察と辛辣な皮肉を描く文豪夏目漱石名著の映畵! ▲パラマウント特作日本語說明版 第二回 バード少將南極探險 貴重なる南極記錄映畵!

殘本處分 大投賣斷行 ▽左の大辭典の模範辭典十冊合本定價十圓の處今回整理の爲め只の一圓に投賣す(前金註文は荷造送料共一圓四十五錢)代金引替は辭典送れとハガキで申込次第荷造送料共一圓四十五錢で送る至急註文あれ、本書は最新刊クロース金文字箱入美本ありふれた粗本に非ず (萬一不向の場合は返金す)

◀辭典拾冊 合本 タダの金一圓▶



日常百般…法律顧問書翰つんだ其日から即座に役に立つ難問題難事件も忽ち解決 本書一冊あれば手紙百般何んでもスラ〳〵と即座に書ける理想的の手紙大辭典なり 今迄の字引の長所に新考案を加へた便利な大辭典語數實に二十萬餘便利重寶な辭典 日常の凡ゆる新語をも一々解釋してあるからどんな新しい言葉でも本書一冊で判る 楷書、行書、草書等書現今必要な文字の書き方や又入れ方が即座に學べる大辭典 ローマ字及英語獨習に先生でも學校も要せず僅か一ケ月で上達する無二の獨習書也 演說や式辭又は挨拶が人々をアッと感心させる模範演述の軍の人も上達自由自在 本書を讀めば自己の蘊蓄を自覺し向上發展の道を體得す人生行路の羅針盤なり 人の氣品才能を評價さる〻一行の文章からだ本書あれば如何なる文章も自由自在 青春男女が思ひのまゝ心の秘密を手紙に告白せる戀愛書翰の手紙を集めて本書に充滿

●大好評!!續狀陸々到着す! 大好評の模範日記を右辭典社の讀者に限り特別景品として同封一般代進呈

▼合本ですから一冊分賣は出來ません 特別景品 無代進呈品 實用模範日記 發賣元 大阪東淀川區木川西町 振替大阪五六〇一四番 現代出版社

京城版

寫眞師協會定期總會

경성사진사협회(京城寫眞師協會)에서는 오는팔일 오전열한시부터영도사(永導寺)에서 제삼사회정기총회와 원유회(園遊會)를아울러 연다는데 회비는 얼원식이라고한다

結身投江까지하게된 兩才媛同性情炎

한명은女流쓰포츠界明星

무엇이그處女들을 죽엄의 길로?

【開城】귀보=인천축항부두에 동성애(同性愛)정사미수사건은 지난 본지오일 석간에 간단히 보도한바어니와 두여성이 모다국인데리놀로써 하나는어미 개성모녀고보를 졸업하얏고도한학생은 동교졸업반 재학중 개교이후 하나꼽는 재원이라한다 대체 그들은 누구이며! 무엇이 그처녀들을 죽엄의길로 끄러드렷슬가?……

그중한명은 녀자정구계의 꼿다운 일홈을 떨치고잇는 리창옥(李昌玉)(二一)(假名)양으로 그는 작년 전일본 명치신궁경기대회(全日本明治神宮競技大會)에 조선대표로 출전하야 준결승에까지 들엇다 석패하얏도 잇는 조선녀류 스포츠계에 명성이나 그가 학교를졸업한지 채일년도 못된 오늘날 왜죽엄의길을 밟으려햇든가

×

그의고향은해주(海州)로써모의 원부호의따님이다。 그런데 그에게는해주인고향에 벌서전 자긔가 마음속으로극진히 사모하든 남성이하나잇섯다。 그러나 학생의신분으로 타향에떠러저서참아 자긔의 복개우는 안타까운연정을 호소할길조차 업시 지내섯다。

그리하야가슴속에、뭉개이는갑회를 혼자쓸고어루만저가려안치며 상사의일념을 그곳에보내고 잇든중지난봄졸업기를 압두고그의겐뜻하지안은 벼락이떨어젓다

연적(戀敵)!이한마디말만도무서울터인데 이주인공이 자긔의처동생임을이야 꿈에나 뜻하얏스랴

이소식을듯자 전기창옥은 고민미치고싶햇다 오죽잇고 바라며 오매불망하든 연인에게 버림을 은몸이될때 세상에 일흠이놉든 자기의존재도 비할데업시 허해보엿다 그리고 동무들은 모다 자기를 비웃는것갓햇다 하긴 래서 그는반발적 심리에서사랑의승리를위하야 끝끝내 실정을할가?도 해보앗다 그러나안되다 하고 몇번이나 입술을악물고 사랑을이즈려 고민하얏다 그후로 그는졸업하고도 일체고향에를 가지안키로결심햇다 「나는 나의사랑을 이저버린 고향엘가고십지안쿠나 부모도 동생도 영영작별이다」

그가 졸업하든날 이러한말을자기의 가장사랑하든동무 조은수(趙銀壽)(二一)(假名)에게 호소하얏섯다

이때 은수는「언니 그러면 제가 졸업하는 래년까지 우리집에서 가치 지내시다가 우리함께 동경사범학교로 유학의길을 떠나시다」하고 그를 붓잡엇다。 그리하야 둘이서는 개성부내원정(開城府內元町) 은수네집한모퉁이에서 가치자고 가치먹고하얏다

어느부터 그들은 열렬한 동성연애자가 된것이다 그리하야몃달을 두고 은순은 마음것 창옥의 쓰라린 가슴을 위로하기에정성을 다하는한편 부모에게졸업후 류학할 의견을 비처보앗다 그러나 원체집안이녁넉지 못한데다가 이해가깁지못한 아버지는 이를용락치안엇다 그후 그는 창옥이와가티 세상이뜻대로 안됨을 서글피생각하며 달밝은밤 선죽교(善竹橋)천변에 나와서 버들가지를 휘여잡고몃번이나 설은노래를 불럿는지 몰은다

사랑을일코 학업을 일흔그들 두처녀는 한업슨속에서 남몰래 울기도 만히울엇다

이때부터 순진한 처녀성에는『죽엄』이란 이상한 유혹이 불가치 이러낫다 암담한 청춘의 인생행로에 오죽 피해나갈길은『죽엄』의길뿐이엇다。그리하야 은순은 언니 창옥과함께 모든 괴로움을 죽엄으로써 청산하겟다 결심하고 갑작스러 몸을일으켜 선생님좀 뵈오러 간다는 핑계로 창옥과함께 지난이일 오후한시에 집을나서가지고 인천월미도를향해『죽엄』의『스타ー트라인』에 나서든것이다。

그날밤 열한시경 두처녀의적막한 그림자는 인천부두 잔교(棧橋)에 나타낫다

고요히 달빗이 깃들은바다물은 평화로운 미소로써 그들에게『죽엄』을 재촉하얏다。이때 두처녀는 두손두발을 찬찬얽어 두몸이 한덩어리가되여 풍덩실ー물에 빠젓다 그런데 때마츰 인천을향해입항하는『조기』배어부가 멀리서 이광경을보고 즉시달려와 그를구조한곳헤 죽을생명은 살엇스나 전기 창옥은생명이 위독하다하며 은순만은다행이 옵바에게 호위되여 지난삼일 오후아홉시차에 고향으로도라오게되엿든바 평소에 학생간에 존경을밧든 그라、그가살어서 돌아온단말을듯고 이백여명 학생들이정거장에 마주나와서 일시는 일장희비극을 연출하얏섯다한다

(사진은 리창옥양)

永登浦一帶에 飮料水飢饉

上水道敷設을熱望

【永登浦】시내영등포정(永登浦町)대총장회사(大塚醫會社) 부근 오십여 호는 요사이 우물물이 말너서 미증유의 물기근을당하야 큰 곤난으로 지내는터인데 그원인은 그근처에잇는 모방직회사 (某紡織會社)가 작년중에 증축공사를하고 기섭히백오십여척이 나되는 공장용수우물을 파기때문에 근방주택우물의 음료수가 모조리 공장우물노빨녀들어가기때문 이라는대 아직까지 경성부당국에서는 상수도를 부설하여줄 꿈도꾸지 안는모양이고 큰야단이라고 주민들은 불평이놉다고한다

六十七個町新總代 來週內로는確定

選擧難으로二個月遷延

【京南】경성부에 행정구역 확장함을 따라 새로편입된 칠십육개리(個里)를 정(町)으로 변경하는동시에 구장제를 철폐식히고 총대(總代)제를 시행한다함은 루보하엿거니와 경성부에서는 이즉시 총대를 선정하려하엿든바 각정에서는 모다전례업든 지위다툼을 이르켜 여짓것 미루워나려오든중 또한 경성부까지 갈리게되여서 여짓것 머무르게되엿섯다한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로래도 밧비선정을 해야될 처지로 래주일에는 먼저 각정에 대표 유지들을 초청하야 의견을 상통하고 즉시 총대를 선정 하리라한다

開城脚戲大會

【開城】고려청년회(高麗青年會)에서는 금년도 예년과가티 오는이십삼일 오후팔시반부터 동회관내에서『씨름대회』를 개최한다는바 전선에 력사는 만히참가해주기를 바란다고하는데 신입기일은 다음과갓다한다

申入期日 六月廿日午後四時까지

場所 高麗青年會內

昨年同期보다 八千餘名激增

總督府圖書館五月中閱覽者

조선총독부 도서관의 오월중총열람인원수는 삼만이천구백이십사인으로 작년오월에 비교하면 팔천이백오십인이나 되는 놀라운증가를 보이고 잇스며 어학문학에관한 서적이 가장만흔열람자수를 보이고잇다

徽文高普校內運動會

시내원서정(苑西町)에잇는 휘문고등보통학교(徽文高普)에서는칠일 오전아홉시부터 그학교운동장에서 교내대운동회(校內大運動會)를 성대히 거행한다는데학부형은 물론일반의 래관을환영한다고한다

日曜講話

◇宗橋敎會 午前十一時 申公淑氏

午後八時 사랑 具滋玉氏

◇南大門敎會 午前十一時 反基督論者를戒함 彼得氏

午後八時 勉勵會獻身禮拜

◇滄川監理敎會 午前十一時 人生과宗敎 金仁泳氏

午後八時 未定

◇石橋敎會 午前十一時 徐洸璣氏

反基督論者를戒함 朴濶瑞氏

午後八時(幼年主敎主催) 어린이主日祝賀禮拜

◇中央基督敎青年會 下午三時 基督敎에서무엇을어드려는가 元翊常氏

◇中央敎會 午前十一時 어떤富者와나사로 金永燮氏

午後八時 罪의價値 李重澈氏

◇尙洞敎會 午前十一時 絶對의信賴 姜泰熙氏

午後八時 保惠師의有益 金鎭浩氏

◇阿峴敎會 午前十一時 善의實在와勝利 鄭奉益氏

午後八時 未定 崔昌信氏

◇貞洞第一禮拜堂 午前十一時 生者는不滅 金鎔宇氏

午後八時 예수第一主義 韓信一氏

◇覺皇寺 六月七日午前十一時 和光開墾 朴聖權氏

◇復活社講堂 午前十時半 床下의狗 金敎臣氏

本社見學

▲世專四學年生二十五名 引率者 金世勳氏▲實踐簿記專修學院 一、二年七十名 引率者崔埼麻氏

今日

佛專主催 本社後援

全朝鮮中等庭球大會 第二日

今七日午前九時 明倫町佛專코ー트

時代는變遷하엿다

(庸無益浪한長廣舌에眩惑되어서責任업는藥을사는時代는지나갓다)

最新醫學原理에符合되고

高貴藥材로研究調製한

世界的强壯劑 네오톤토닉

(適應症) 肺結核・神經衰弱・食慾減退・産褥・一般虛弱及疲勞・萎黃病及貧血・營養障碍・肋膜炎・急慢性氣管支加答兒・傳染病經過後・神經沈鬱狀態・脈搏不整・心臟病・腺病質・恢復期

【注意】最近에는『トニク』(英語에强壯劑란뜻)란말을붓친藥品의種類가數多함으로『ネオトントニク』愛用家諸位는注文하실時에는 반드시버드나무標『ネオトントニク』라指定하시요

【無代進呈】上記人體榮養作用圖解를擴大하야 高級藝術版으로印刷한것이有하오니願하시난분에게는 請求次第無代進呈함

製造元米國아볼트製藥會社

東洋輸入總發賣元 柳韓洋行

京城・上海・大連

(カバ) (カタログ進呈)

丸善テント商会

釜山牧ノ島 電話牧ノ島一〇八

장갑

製造家를求함

○年中無休……收入確實

本業은小資本으로서京鄕을莫論하고婦女子들이容易하게製造、製法은二三日의講習으로充分、製品은一手로引受、綿絲는供給하며들임으로써遠地에서라도不便업시取引할수잇슴、目下有利한條件으로서製造者急募中

詳細는通知次第說明書無料送呈

朝日軍手京城支店

京城府黃金町五電停前 電話本局(2)二七五三番 本店・大阪・支店・東京 平壤府櫻町五三朝日軍手營業所

浪花館

六月三日より六月七日まで 今週に限り 上映時間表

初姿 一回 二・〇〇 二回 三・五 三回 七・〇〇

旅鴉子供連れ 三・五四 四・三 八・〇四

娘に告ぐ 三・〇九 五・〇四 九・一三

第一映畵トーキー ▲初姿

RKO日本版 ▲旅鴉子供連れ

蒲田特作映畵 娘に告ぐ

六月八日より (家族會議)(三ンドお日那)

六月五日부터晝夜四日間特別大公開!

料金階上三十錢階下二十錢均一 낫一時 밤七時四十分始映

RKO라지오超特作全發聲日本版 巨匠…로ー란드・V・리이氏監督作品

世界大衆文學의覇王아렉키산다듀ー마原作의

三銃士

劍戟의達人월터・에벨氏主演

劍化一閃、奸臣을버히는『三銃士』의바라보나所敵업다、이야기는、사랑과武士道의빗나는佛蘭西中世劍을휘두는當代無雙한快男子달다니안이、루이于股肱의三銃士와힘을協力하야縱橫無盡에서날뛰는

痛快淋漓의武俠紀實錄!!

新興키네마社超特作全發聲版! 半島가나은一代의舞踊家 崔承喜孃 主演映畵!!

半島의舞姬

監督…今日出海氏

撮影日數八個月撮影費十數萬圓로케숀隊前後二回來鮮撮影!!新興名優總出演 全發聲映畵

初春行進曲 全一篇

優美館 雄壯!壯烈!空中悲愴曲! 六月六日부터超特別大封切 유社超特作發聲日本版 그리스三가반두氏大作品!

征空重爆擊

잭크홀드氏 안토니오모래노氏 모나ー바라孃 大共演

유社超特作日本版 루이후이드란다ー監督

大谿谷의呼聲

진로자ー스 小노아삐아리ー氏 후랫드고ー라ー 主演

아리소나의大… 西部馬賂의音響에人情이彈奏되는高原大交響樂!

大都映畵社超特作時代劇 白井戰太郎 監督

伊達姿元祿頭巾

海江田讓二 主演 近衞十四郎 久野あかね 助演

貫鐵町 電光三九五 桃花劇場

…漢浦桃花町 電龍三…

(桃花劇場)

味の素 (登錄商標)

「四季朝鮮料理法」定價五錢 送料二錢 京城府南大門通三丁目 鈴木商店朝鮮事務所

李王家御用達 味の素本舖 株式會社 鈴木商店

團成社

六月四日封切 每日二回午前十時四十分 午後一時半六時半

◇M、G、M、超特作映畵 로이델루스 監督

世界的女性탐프때저…… 에리노아폴엘 世界的美男子…… 로바ー드 텔러 主演

춤추는부로드웨이 (Broadway Melody of 1936)

三六年度紐育의超近代樂歌斗絶讚할興人들의춤과노래속에다닌스피드에諸君은陶醉하리라M、G、M大作은이것!

◇M、G、M超特作映畵 잭크콘웨이監督

체스타모리스、캐롤롬빠ー드主演

깽의新婦 (The Gay Bride)

金髮美人의一笑에當代戰慄할깽의一團이拳銃機關銃爆彈으로도當해의날수업는女子의武器!百戰、諷刺의一齊射擊!痛快絶!

◇日活超特作映畵 杉狂兒小杉勇黑田記代主演

岸田國士原作

人生天氣豫報

—(次週封切)—

洪吉童傳商影、上에서下까지메추로포리탄、나는우리동니재롱거리鄕愁映春레코를의愛國者

映畵殿堂 全鮮第一

朝鮮劇場

六月五日부터晝夜

京城座離京(終週)公演

다시地方으로巡業의길을떠날朝鮮劇座가밧치는告別特別公演이니보시라括目할超特別藝題!

一、流線型『春香傳』三幕五場

南宮春編

超모던春香傳으로脚色의妙아울너이야말로珍無類의春香傳일즉이꿈도꾸어보지못한一九三六年型春香傳으로큰센세이슌을일르키고야말것이다

主演 金小鳥、李正順、南方雪、許美羅、金元浩崔英善、金鐵、孫一平、尹炳春、金小貞、金健脚色

二、新版薔花紅蓮傳三幕五場

薔花紅蓮의決定的으로써새로운멘버아래上演될이演劇이야말로愛劇家의눈물과한숨을긋업시자아낼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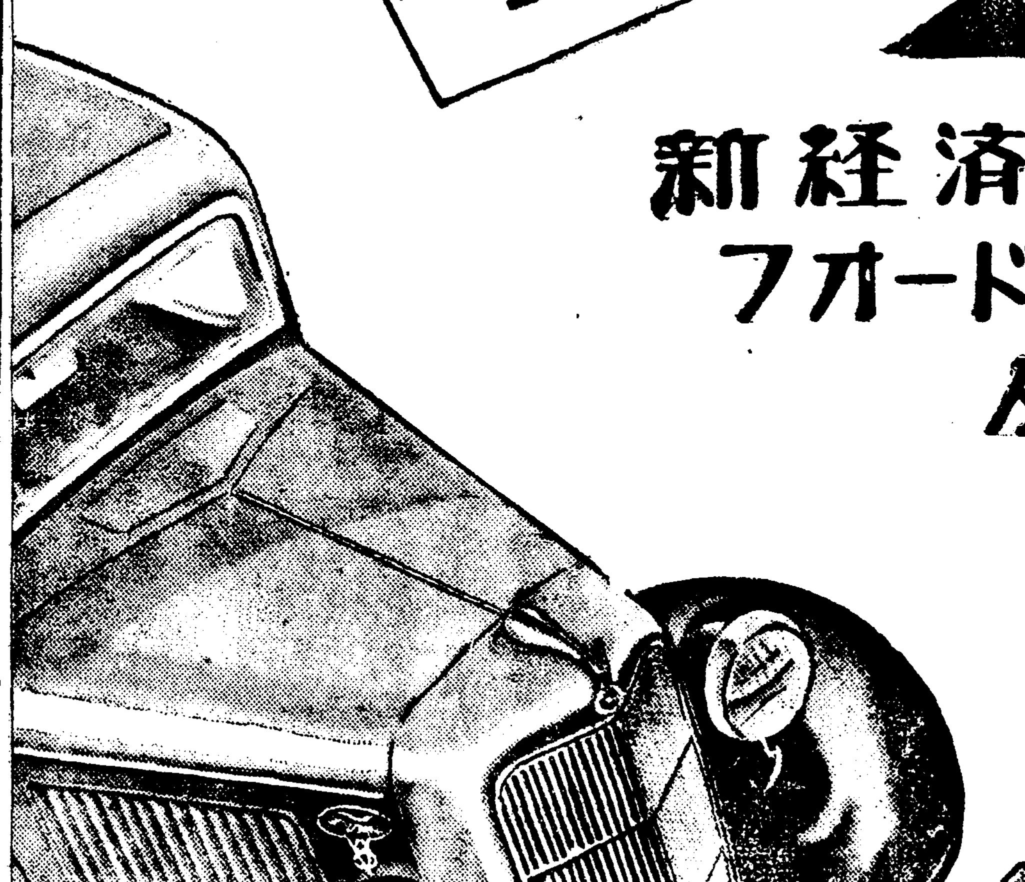
主演 尹才寶、石臥佛、全景希、龍玉子、宋門平、尹順善、金牧齋太乙民

西大門町 電光3 三三番 東洋劇場

新経済氣化器附

フオードV-8トラック及びバスは

斯界에經濟의新標準을樹立하엿습니다。我國에서는本氣化器를爾今포ー드듀력・엔진에標準裝置로서부첫슴니다。



今やフオードに勝る經濟的車輛は他にありません

Ford

フオードV-8

フオード特約販賣店

平南自動車商會 平壤府濱町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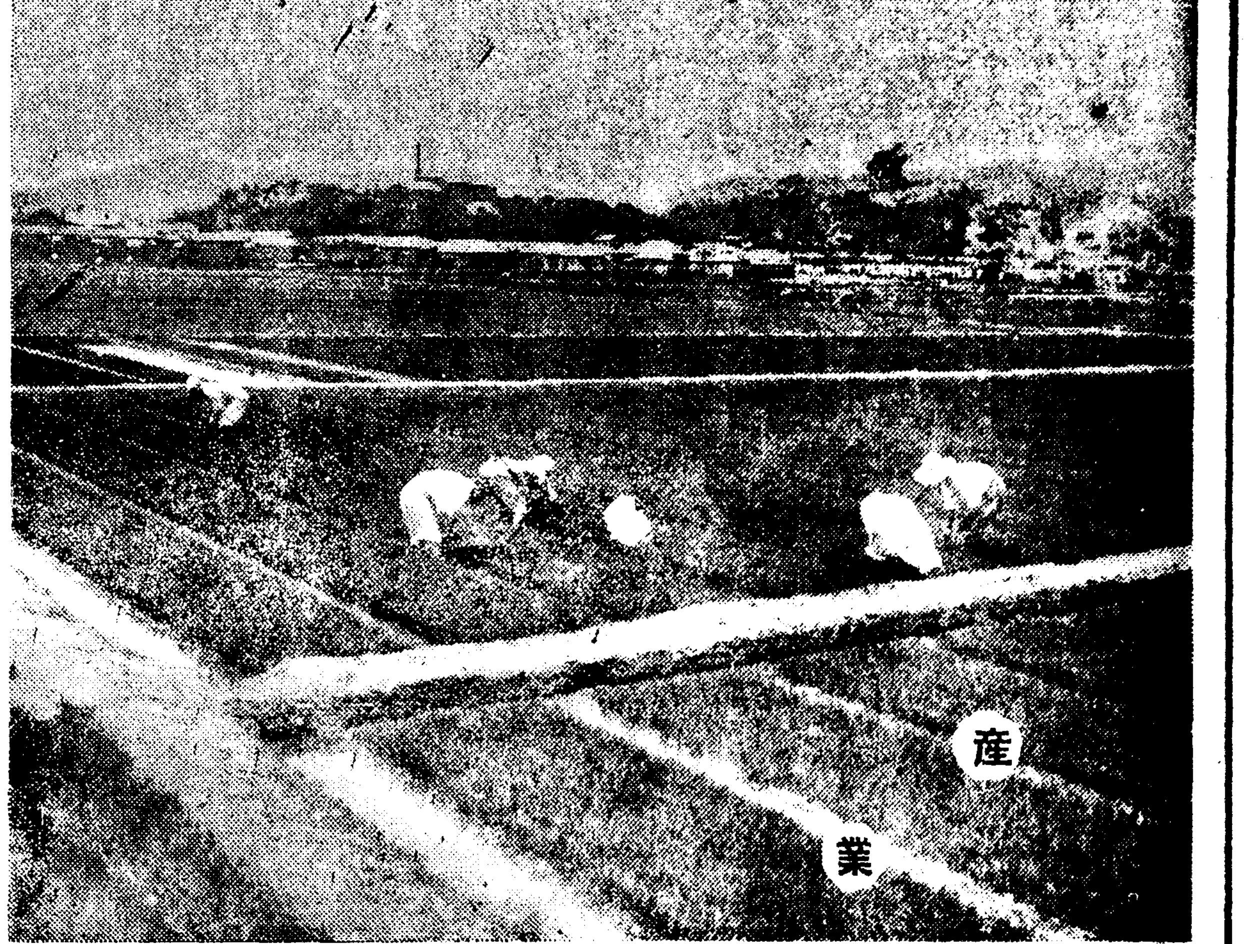
楠本商店 京城府若草町大通

朝鮮鐵道株式會社自動車販賣所 釜山府榮町一ノ一

イトウ商會 清津府彌生町六

丸大商會 全州府本町一丁目

咸鏡モーター商會 咸興府朝日町一ノ三六



鰮油肥聯合會 第一回臨時總會開會

朝鮮鰮油肥製造業水産組合聯合會는 六日午前十時부터 京城商議會議室에 第一回臨時總會를 開催하고 理事長 西本 水産課長 議長司會下에 左의 議案을附議하얏다

議案

一、役員選任及解任件
二、鰮油肥販賣에關한契約繼承의件
三、鰮搾粕及콰수밀의販賣方針에關한件
四、昭和十一年度豫算에關한件
五、起債及其償還方法의件
六、諸規程設定의件

그리고 八日도 午前九時부터 繼續하야 總會를 開催할터이다

承認된聯合會事業

六日第一回臨時總會에서 承認된 鰮油肥製造業 水産組合聯合會의 事業內容은 大體如左하다

一、委託販賣事業

(가) 直賣=鰮搾粕의 一部及 콰수밀의 大部分으로 直賣는 消費者團體(朝鮮農會及全購聯) 總督府에서 承認한 朝鮮內取引業者及 總督府에서 承認指定한者로 自身 粉末肥飼料의 原料로함을 目的으로 하는者 콰수밀은 對獨輸出組合(目下日本內地에서 設立計畫中)及 總督府에서 承認한 輸出業者 及 販賣業者

(나) 三菱委託 鰮搾粕의 大部分을 委託하는 販賣處는 本會와 三菱과 共同調査한후 總督府의 承認을 어더 指定한者

二、奬勵金交付 直賣、委託의 區分이 업시 買受者에 適當한 比率을 定하야 交付함

三、共同購入事業 空罐、蓆等의 購入

四、金融 原料購入資金、共同購入資金

五、職制 理事長一名、理事二名(그中一名은 日本內地駐在) 總務、事業、調査、計畫의 三部를 置함

六、豫算 歲出入共 十一萬六千九百二十圓

殖銀으로부터 資金을借入 總額二百四十三萬圓

鰮油肥聯合會에서는 事業資金으로 殖銀으로부터 合計二百四十三萬圓을 借入하기로 되엇는바 그內譯은 如左하다

一、原料購入資金 二百萬圓
一、共同購入資金 三十萬圓
一、一時借入金 三萬圓
一、荷爲替引受準備金 十萬圓

鰮油肥聯合會 理事長에 大島氏

今日午前十時부터 開會하야 午前十一時終了하얏는바 役員의 改選은 理事長西本水産課長이 辭任하야 大島良士氏를 選任하고 理事에는 上山元總督府水産課屬이 選任되엇다 그런데 八日은 午前九時에 再開하야 第六號議案諸規定設定의 件을 付議할터이다

鰮油肥製造業水産組合聯合會總會

橫城郡棉作好績

江原道의 棉作地帶로서 氣候風土가 가장 適當한 橫城郡의棉作奬勵는 昭和九年度부터 開始한 以來 當局의 指導와 農民의 自覺으로 昨年과가튼 해에는耕作面積이 狹少하야 共同販賣가 겨우 六萬斤에 不過하얏스나 그 中에는 反當三百斤以上의 收穫한者도 相當히잇슴으로 棉作의 前途는 實로 洋洋하야 今年度에는 郡當局의 大英斷으로 作付面積八百町步로 擴張되는 同時에 五十五萬斤의 共同販賣를 斷行하고저 指導督勵를 行한 結果 大體的으로 計畫面積을 突破하야 播種을 完了하엿다 한다

濟州島牧野에 牛馬大增殖 牛肉의加工도計畫

濟州島 全面積 二十萬町步의五分一을 占하는 牧野의 利用에 對하야는 島當局에서 일즉부터 牛馬의 放牧場으로 그開發에着手하야 現在 牛三萬二千頭 馬二萬三千頭를 飼育하고 잇는바 最近數年間은 거의 增加를보지못하야 成績이 자못不良하므로 島當局에서는 그原因이 飼育牛馬의 有利한 利用法이 講究되지못하기때문이라하야 今年度부터 牧野의 大整理에 依하야 飼育의 增殖을 圖하야 今後 日本內地에의 移出增進을 圖하는 同時에 牛肉罐詰工場을 設하야 畜牛의 加工을 促進할 方針으로 牛는 五萬四千頭 馬는 二萬五千頭 目標로 增殖計畫을 樹立하얏는데 이에 對하야 總督府에서도 明年度부터 畜牛의 大增殖計畫을 實施準備中인만큼 農政課의 油井技師를 派遣하야 實地踏査를할 豫定이라한다

全北麥作豫想 比前年四分減收

【全州】 今年度 全北道內 麥作은 近年未曾有의 酷寒과 寡雨로 大減收를 豫想하엿든 四月以來 降雨順調로 因하야 相當히 恢復되야 去六月一日 現在 全北道農務課에서 調査한데 依하면 作付段別 九一、八〇四町一段 七三六、〇〇四石의 收穫豫想인데 이제 麥別段當收量은 다음과갓흐며 總收穫豫想은昨年에比하면 約四分五里가 량이다

▲大麥 作付段別 三六、二九七町八段 收穫豫想 三〇八、六九一石
▲小麥 作付段別 五、三八一町一段 收穫豫想 三三、七七五石
▲裸麥 作付段別 五〇、一二五町一段 收穫豫想 三九四、五三八石

北으로北으로 漁船은進出 멀리"오리가"灣까지

朝鮮의 北洋漁業進出은 從前所謂피ー다ー大帝灣(보세ー드灣)아메리카灣의 近接地帶에 限定되어잇든바 最近漁業技術의 進步에 伴하야 다시 北上百三十浬의 오리가灣에도 出漁船이 增加하는 傾向인데 이는 蘇聯의 壓迫으로 進展難이다 이에對하야 今後 新峽功되는 照國丸等을 先導로하야 今年度부터는大大的으로 오리가灣 一滯까지 進出할 豫定으로 朝鮮漁船의 北洋積極的進出이 期待된다고한다

『베니야』板 製造工場出現

朝鮮木材工業株式會社는 일즉이 [illegible] 日總會를 예기로되엇다 同社는 資本金五十萬圓 拂込十五萬圓으로 朝鮮에서 最初의 事業이라하는 「베니야」板의 製造를 主目的으로하고 其他製材도 하려는것인데 工場은 仁川萬石町에 두고 最初는 南洋 比律賓材를 原木으로 製造할 豫定인바 近近 總督府營林署의 指揮下에 楊、樺、椴、胡桃等의 原木拂下를 바다 이를 資料로하려고 工場能力은 「베니야」板年産六十萬枚、製材年産七萬立方尺로 十月頃부터 操業할 豫定이다 그런데 同社는 最初設立으로하고 一般에 公募치안는다고한다

掛目과繭價 春繭價는幾何?

既報와가티 今年春繭 基準價格協定은 五日 總督府에서 決定된바 所定의 各掛目에 對한 繭價의 各等級別基準價格을 計算하야보면 다음과갓다

掛目	特等	一等	二等	三等	四等	等外
	圓錢厘	圓錢厘	圓錢厘	圓錢厘	圓錢厘	圓錢厘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掛目=掛目에 依하야 繭價(百匁에對한 絲量(絲目)이라稱함)를 計算하는方法은 各等級別生繭에 掛量乘算하면 繭價가 算出되는데 現在 朝鮮에서 實施되는 春繭(生繭)의 各等級別標準은 生繭百匁中에 絲量이 十二匁되는것은 特等繭、十一匁되는것은 一等繭 十匁되는것은 二等繭 九匁되는것은 三等繭、八匁되는것은 四等繭 七匁되는것을 等外繭으로 規定되여잇슴으로 例컨대 掛目이 二十五掛되는때의 各等級別 計算은 特等繭價格은12×25=300即三圓 一等繭價格은11×25=275即二圓七十五錢 二等繭價格은10×25=250即二圓五十錢 三等繭價格은 9×25=225即二圓二十五錢 四等繭價格은 8×25=200即二圓 等外繭은7×25=175 即一圓七十五錢이 될것이다 그리고 例年과가티 이번 協定에잇서도 上簇改良을 施行한繭에對하야는 二掛以內를 增加한다고 하얏슴으로 이런境遇에는 所定의 掛를 加하야 計算하면 될것이다

硫安價低落으로 金組에打擊莫大

全北道內 村落金融組合에서는 道聯合會와 協議하야 組合員에게 硫安을 可及的廉價로 購買하여 共同購入의 方途를 取한바 意外에 需用期에이르러 (購入當時四圓五十錢)時價三圓五十錢의 大暴落을 示하게되여 結局市場보다 一圓가량高價로 組合員側에서는 共同購入을 拒絶하고 組合에서는 不應케되여 組合과 組合員間에 葛藤을보고 잇는組合이 不少하다는바 其中 顯著한곳이 沃溝金組로 同組合에서는 萬叺이나 購入하게되여 其損失額이 實로萬餘圓에 達하야 處置上苦痛이莫大하리라한다

營林署材拂下決定

昭和十一年度 營林署材拂下는例年同樣 三井京城支店、共榮木材 杉原合資의三者가 民間材各五萬石 計十五萬石、軍用材各四萬石 計十二萬石 總計二十七萬石의拂下를 밧기로決定되엇다 이結果 前年度拂下材에比하야 軍用材가 一萬千石減少하얏는데 追加拂下豫定材를 豫想하면 兩材모다前年과 同樣하다

鋸屑을利用 無水"알콜"製造 新義州에 工場設置

木材都市로서 이름을 날리고잇는 新義州는 府內에 이르기까지 到處에 製材工場의 煙突이 樹立하야 每日製材모ー다가 不息하야 多額의 製材를 行하고잇는바 이에伴하야 鋸屑는 工場모둥이 마다 山積되나 그一部分이 燃料로使用되는 以外에는 全部廢敗되는 狀態인데 今回 府內某有力者가 그利用法을 講究하게되엿다 그는 獨逸에서 木材로부터 無水알콜을 摘出하고잇는 事實을 본바다서 廢物同樣의 鋸屑로부터 메치루알을 抽出試驗을 行한結果 良好한 成績을 어덧슴으로 新義州에 鋸屑利用의 無水알콜製造工場을 設立하기로되야 前者獨逸에 五十萬圓의 權利金을 보내어 日本의 無水알콜製造 特許權을 讓受하얏고 이에 東拓이 後援하야 一大工場을 設置하게되엇다 工場이 操業을 開始하는 날에는 從來 廢物同樣이든 鋸屑는 一躍重要製産品의 原料가되는 同時에 國境木材界는 더욱 活況을 呈하게되리라고한다

家畜保險法立案 損失을共濟코金融擔保性도增大 有畜農家에一條光明

日本內地에서는 昭和四年九月부터 家畜保險法이 實施되야 家畜의飼育、普及 及 有畜農業의 進展上에 顯著한 效果를 내이고잇는바 朝鮮에서는 牛百六十萬頭를 筆頭로 豚等도 普及되고잇는 畜産地帶임에도 不拘하고 그保險制度는 아즉 實施되지못하야 家畜奬勵上 遺憾됨으로 最近關係方面으로부터 頻繁히 그實施를 要望하고 就中 金融組合聯合會에서는 家畜金融의 見地에서 家畜의 共濟保險制度 設定에 關하야 農林局에 對하야 要望하고잇슴으로 農林局에서도 그立案에 着手하기로 되엿다 家畜保險制度가 實施되면 家畜의 斃死 其他의 損失에對하야 共濟가 確定되며 따라서 金融擔保性도 增大될것으로 그가 施行되는날에는 有畜農業의 普及에 大光明을 주리라고한다

平南三水組區內 灌漑面積을縮少

今年은 變態의氣候로써 西朝鮮一帶에서는 水量不足으로 移秧期를 目前에두고 이危機를 넘어서기에 勞心하고잇는바 一日부터 平南道農務課에서는 管內六水利組合의 理事技手等을 召集하야 協議會를열고 그對策을 講究中이든바 一日에는 別成案을얻지못하고 그翌日인 二日까지 協議를 繼續하엿다 그리하야 移秧을하드래도 多少 貯水가남는江西는 十日 順安은 十五日 慈山은 十二日에 移秧을 하기로하고 남어지 三組合은十五日 以後부터 一齊히 移秧開始를 할터이나 全面積에 對하야 大同은五十八町尺 平安은九百二町尺의 水量이不足되고 長水院은 겨우六町尺이남는 形便임으로 이組合은 減段을하기로 決定을 하게되엿는데 그減畓部分에다 엇더한 代作을할것인가 하는데 對하야 協議를거듭한結果 大體 乾畓으로 하게될모양이라하며 六月二十日까지 灌漑水量 持續식힌後는 全혀 天候에 一任하는外에 他途가업는形便에잇고 今年은 平年作은 到底히 可望이업다고한다

日用商品市況

六日 京城市內 海産物 及砂糖、麥粉市況을 보면大體다음과 갓다

▲明太 保合
乾明太는 現在 北海道産의大形明太가 만히 入荷되고잇스나 朝鮮産은 小形인 關係로 商人側은 買入을 질겨하지안흠으로 入荷는 極히少量이다 今日市勢는한짝(三十五貫들)에 對하야上品二十三圓 劣等品은十三圓가량되는것도잇는데 이것은 거의商品의價値가업는것이다 그러나 亦是一般的으로 賣行은 良好하다

▲미역 凡調
미역은 新藿이本格的으로入荷되고 잇는反面에 舊藿은차츰市場에서 자최를감추고잇는 狀態이다 今日市勢도 한손(二十닙)에對하야 新藿은二圓五十錢 舊藿은三圓三十錢 가량인데今後는 新藿의 出廻가 더욱旺盛하여질것으로 豫先低가 豫想된다고한다

▲조긔 活況
乾조긔는 出廻期가 모다旺盛期에入하야 入荷가만코며 賣行도良好하야 今日市勢는 한게미(十尾)에對하야 三十五錢 乃至六十錢가량이다

▲大口魚 不變
乾大口魚는 依然入荷가만코 賣行이 良好하야 今日市勢는 每斤에 二十五、六錢가량이다

▲메르치 不振
메르치는 出廻最盛期를 앞두고 良品의 入荷는 殆無狀態이며 劣等品가나리가 조곰出廻되는狀態인데 今日市勢는 一貫에 對하야 八十錢가량이다 今後는出[illegible]

▲砂糖 閑散
砂糖은 今週에 드러와서 需要가 急減되야 閑散한데 이것은 例年에 比較하야보면 一時的現狀으로도 보이어 大體 一週間 前後로 回復되리라한다 今日市勢는 六十六斤(百斤)에 對하야

白砂糖 二一、七〇
黃砂糖 二〇、七〇
黑砂糖 一一、五〇
分蜜糖 一七、五〇

▲麥粉 保合
麥粉은 新麥期가 迫頭하야 需要가 依히 閑散한 狀態인데 이것도 新麥의 先物取引이 漸次로 進行됨을 따라서 回復될 豫想인바 今日市勢는 二十二斤一袋에 四圓二十錢으로 保合狀態이다

寧邊은비단産地 年産額四十萬圓의驚異的數字 海外進出도時期問題

關西八景이라면 依例히 寧邊藥山東臺를 꼽지안흘수업나니 實로 아름답고도 빼나다 그絶景에 探勝者 어이 詩一首를 아끼고갈소냐? 이佳秀한 自然의 絶景만이아니라 그품안인 寧邊城內에서는 각씨들이 纖纖玉手로 짜내는 唐紅色法緞、交七色熟素가 멀리 南朝鮮等地로 移出되여 나가 젊은 男女의 몸으로丹粧하야준다。

그러면 話題를 돌리여 織物의 하나인 寧邊紬의 沿革을 보기로하자。文獻이 도렷한바업서 엇더케셔 始作되지는모르되 約一百二十年前부터 오늘날 著名한 寧邊紬를 寧邊에서 紡績한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그때는 不過十餘疋이 年産高라는것을 史實로알수잇다 當時는 現代와까튼 科學의 恩德을 못입는때라 遲遲不振하야 자못緩緩로 八十年가량을 내려오다가 約四十年前인 [illegible]時代에 名官이라부를만한 李載完府使가到任하면서부터 寧邊紬를 積極奬勵하야 當時치고는 꽤發展되엿다고한다。歲月은 흘러흘러 國際的으로 變動이생기고 産業上으로도革命의 餘波를 바다 寧邊紬도 그대로 古色依然할수는업섯다 니 때는바로 己未年을 싸고도는 風風雨雨이다 時節이엿다 斯界有志諸氏는 織造組合을 創立하고 改良機와『자가도』機를 購入하여 約三十臺의 機械로 當地天道教堂에서 工場을 設立하여 노코 改良紬와 熟素等을 짜내면서不絶히 技術을 練磨식히는 一方各方으로 宣傳하야 조흔成果를 나타내고 잇는바 晩近産業組合이 생겨 資金을融通하여주는데 伴하야 機業은破竹之勢로 長足의 進步를 하야 小邑인 寧邊에서 忽驚 年産額 四十萬圓이라는 놀라운 數字를 보이고 잇다 이제 機械臺數、織物數 그品別과 그에달린 戶數를 드러보자 九千二百五十戶에 改良機二千臺 "자가도"百臺、在來機七千三百九十臺 合하야九千四百九十臺에 熟庫紗二千疋、眞珠紗千疋、生庫紗千疋、花生素千疋、花紬仁千疋、熟素千疋、生老方千疋、倭紗千疋、熟亢羅千疋、生亢羅五千疋 改良紬四千疋在來紬二萬疋 班紬二千疋 盡珠織千疋 八字織千疋 菊絲千疋 陸織千疋 交七色二千疋 春紗四千疋 合絲紬千疋 麻布萬疋 合計六萬二千疋이라는 엄청난數字에 價額四十萬圓에 達한다고한다 집집마다 비단짜는소리가 흘러나와 처음으로 寧邊을 구경하는 손에게는 一種이상한 感을 줄것이다 그런데 織物에 需要되고도 남음이잇는 原料 蠶繭은 寧邊서 海外로 輸出되여나아가는 것이 年年約六千石假量으로 그價額이또한卄二萬圓에이른다고한다 이러하야 나날이 加速度로 發展되여나아가는 寧邊의 織物은 國境을 돌코 나아갈 時機도 머지안타할것이다 엇지 비단만 特産이라하랴 風景조흔 藥山東臺에 올라안차 東南을 바라보면 龍登炭鑛이잇는데 그炭鑛에도 年産額八十萬圓이 産出되며 珠場附近에서는 石瓦가 每年七萬圓가량이 産出되는바 이는 平壤附近으로 多量으로 搬出되고잇다 (寫眞은紡織組合工場一部)

寧邊特産 寧邊支局 一記者

鑛業權設定·移動

◇鑛業權設定

登錄番號	鑛種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一二九七一	金銀鑛	黃海海州郡東雲面秋花面	五月七日	京城府阿峴町 代表者 李寬浩 同 金福永 海州郡東雲面 徐錫權 京城府太平通 辛德鉉 同武橋町 趙慶燮
一二九七二	金銀鉛鑛	咸南安邊郡衛益面 江原淮陽郡下北面	同八日	京城府樓恩町 代表者 閔興鉉 安邊郡衛益面 李容愼
一二九七三	水銀鑛	平南孟山郡玉泉面 德川郡蠶島面	同	東京市日本橋區小舟町 小原俊二
一二九七四	金銀鉛鑛	慶北漆谷郡架山面	同	大邱府三笠町 田嶋安次
一二九七五	金銀銅亞鉛鑛	咸南新興郡永高面	同	京城府南大門通 朝鮮鑛業開發株式會社
一二九七六	同	同西古川面	同	同
一二九七七	同	同加平面	同	同
一二九七八	同	同元平面加平面	同	同
一二九七九	同	同加平面	同	同
一二九八〇	同	同	同	同
一二九八一	同	同原州郡下岐川面	同	同
一二九八二	同	同咸州郡德山面 新興郡東古川面	同	同
一二九八三	同	同下岐川面	同	同
一二九八四	同	同下朝陽面	同	同
一二九八五	同	同西湖面興南面	同	同
一二九八六	同	同下岐川面	同	同
一二九八七	同	同雲南面興南面	同	同
一二九八八	同	同	同	同
一二九八九	金銀鉛鑛	同安邊郡衛益面	同	同
一二九九〇	金銀鑛	江原伊川郡龍浦面 鵝鳳面板橋面	九日	同南米倉町 安平一
				平壤府鹽店里 代表者 金承起 同蹄路里 王寧九
一二九九一	金銀銅鑛	咸南豐山郡熊耳面	同	豐山郡熊耳面 李昌璐
一二九九二	金銀硫化鐵鑛	江原金化郡遠南面 近東面	同	京城府西四軒町 友谷榮三
一二九九三 (登錄第一二二號砂金鑛區ト重複ノ關係ヲ有ス)	金銀鉛鑛	咸南長津郡郡內面	同十一日	同樓下町 李鍾萬
一二九九四	同	同	同	同舟橋町 趙明晋
一二九九五	高嶺土	慶南河東郡青巖面 山淸郡矢川面	同	同
一二九九六	金銀銅鑛	咸南端川郡北斗日面 豐山郡天南面	同	城津郡城津邑本町 野崎恭介
一二九九七	黑鉛	咸北城津郡鶴城面	同	同
一二九九八	金銀鑛	平北雲山郡加別面 寧時面	同	安邊郡瑞谷面 朴海鏞
一二九九九	黑鉛	咸北城津郡鶴城面	同	京城府[illegible]町 石鳳浩
一三〇〇〇	金銀鑛	江原[illegible]郡東面、[illegible]面	同	東京市王子區稻付町 岩瀨亮
一三〇〇一	同	平北慈城郡慈城面 梨坪面	同	同杉並區荻窪三ノ一 大谷津[illegible]
一三〇〇二	砂金	咸南長津郡北面	同	長津郡內面 代表者 金昌淳 同北面 李鶴韓 同 [illegible]順
一三〇〇三	高嶺土	慶南河東郡金南面	同	晉州郡晉州邑 鄭桐鎬
一三〇〇四	金銀鑛	平北慈城郡慈城面	同十二日	平壤府慶上里 金錫鎬
一三〇〇五	同	江原江陵郡旺山面	同	京城府寬勳町 周命濟
一三〇〇六	同	同	同	同
一三〇〇七	同	咸南高原郡水洞面	同十三日	同水下町 許[illegible]燮

◇鑛業代理人屆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鑛業權者	事項
三六七二、四九六九	黃海瑞興郡內德面	三成鑛業株式會社	鑛業代理人 塚田義友를 解任하고 載寧郡銀龍面 [illegible]을 鑛業代理人으로 選定한旨 昭和十一年五月四日屆出
五六五三	同木回面		
七四一一	同龍平面		
一二二四六	同瑞興面、東部面		
四三三三	同遂安郡公浦面		
七〇七九、七二二四	同鳳山郡雙山面		
八三七八、一〇一七七	同		

黃昏 (105)

韓雪野 作
安夕影 畫

사랑을넘어서(一)

려순이가 다시 주인으로 돌아오지 얼마못되어서 경재가차자왓다。

려순은 경재를 방으로 안내하는 그순간 전후의일을 생각하지 안헛다 경재의아버지에게 대한 감동도 잇고 잇섯다。경재에게 대해서는 물론 한층 감정도 잇슬까닭이 업섯다。

그러나 다음 순간、그는 야릇하게 아무말도 하고십지안헛다。

자기의 그심리는、자기로도스스로 알수업섯다。그러나 그러한 미묘한심리가운데서 다음과가튼 몃가지만은 아닌 밤중의 반듸人불가티 반작하고 번득이엇다。즉 과감히 사랑을 넘어서는 장엄한심리와 홀로잇슬때보다도 둘이 잇기때문에 더한층 고적해지는듯한 심리를 그는 복잡한 심리중에서 언뜻엿잡을수 잇섯다。

그는 다음으로 경재가 잇기때문에 그가 업는때보다 더외로워지는것가튼 야릇한 심경을 좀더 분명한 의식우에 올려노아보앗다。그러는 순간、그는 까닭모를 비장한생각이 신경질적으로 가슴을 스치고지나가는것을 깨달앗다。

그는 단정히 안즌채 아무 말도 하지안헛다。

그리며 보는곳업시 머리를들[illegible]고 눈앞에 그린 저흔경재의 환상(冥想)에구영이나 두룰듯이 여광을 응시하고 잇다。

경재의편으로는 좀처럼 눈을 돌릴것갓지 안타。

일순간 경재에게는 이상한생각이 언뜻 왓다。너무도 무거운 침묵이요 리해할수업는 태도인것 가탓다 그러나 경재는 곳 도리켜 생각하엿다——

너무도 굳게 뛰는 젊은심장은 때로는 상대자를 무척 피롭게 하고십흔것이다。울리고도 십흔것이요 섬하면 까무러치게 하고도 십흔것이다。엇더케 상대방을 포용하지안코는 견딜수업는 백열(白熱)의순간에는 더욱 그러한것이요、너와나라는 거리가 령(零)으로 비약하라는 때 동기(衝動期)에는 더욱 그러한 것이다。

웃기위하야 우는것이며、울기위하야 웃는것이다。개기위하야 흐리는것이며、흐리기위하야 개는것이다。

그러타면 맑게 개인 하늘을 맘것 바라보기위하야 먹장가튼 구름의 한때를 려순은 스스로 짓는것이 아닐가?

그러한 심경은 경재자신도 몃번이나 경험한일이 잇다。따라서 그것은 누구보다도 잘리해할수 잇다。자기이외의 어떠한 사람의 그러한 심리도 잘알아볼수잇거던、하물며 지금 눈압헤 바라보는 사람이 바루 자기의 유일한 상대자인 려순임에랴!

경재는 려순의 심리를 쳐둘러보는것 기탯다。

『려순씨!』

경재는 더참을수업는듯이 갑짝이 이러케 물럿다。

그러나 려순은 아무 대답이 업다。

『려순씨! 무슨생각을 그러케 골몰히 하십니까?』

『………』

『려순씨! 려순씨 생각을 내가 대신 말하리까?』

그래도 려순은 잠자코 잇다 부처와가티 단정하고 호수人물가티 잔잔하다。

『내가 말하지요 려순씨는 지금……』

경재는 이러케 말해 노코는 한참 속으로 생각하엿다。려순의 심경을 자긔가 아까 생각한대루 말해버리는것은 너무도 속된일이요、또 려순의 깁허지는맘을 그만 중도에서 먼처버리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엿다。기껏 깁혀 지는것은 기껏 놉흔대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지옥을 통하지안코는 락원으로 갈수업는것이다。려순은 지금 바루 지하도(地下道)를통하는것가튼 침묵에 잠겨잇다。

그러한 려순의 압헤 닥처지근한 사랑의속색임이라는 조고만 등人불을 부처주는 서뿌른 일을 그는 해주랴고 하지안헛다 좀더 려순의맘을 밀어서 굴속으로 올진시키고 십헛다。그리는것이 곳숩고 밝은곳으로 나가는것이되리라고 생각하엿기때문이다。그래서 그는

『지금 려순씨는 후회를 하고 잇는거지요……』

하고 우선 개벼운 채쭉을 려순의 맘에 던저보앗다。

그러나 려순은 역시 아무대답도 업다。

『인생의 허무를 느끼는거지요』

『………』

『아니 인생의 허무라는것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들의일의 허무를 느끼는거지요』

경재는 재처 이러케 물엇다 경재자신도 려순이가 반드시 그러케 생각하고 잇는것이라고는 생각지안헛다 그러나 려순이 단전을 울리는것이 그의 맘을 두드리는 가장 조흔 방법이리라고 생각하엿든것이다。

그러나 려순은 역시 여전한 태도다 지하실만갓순(十萬地獄)을 통하는것가튼 무서운 침묵을 지키며……